

「第11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南北單一팀 構成・參加關聯

第8次 南北體育會談 會議錄

1990. 2.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目 次〉

1. 一般事項	3
2. 會議錄	7
附錄：代表團 記者會見	85

1 . 一般事項

가. 日 時 : 1990.1.29 (月) 10:00 ~ 12:19

나. 場 所 : 板門店 北側地域 「統一閣」

다. 雙方 代表團

우 리 側	北 側
<p style="text-align: center;">〈首席代表〉</p>	<p style="text-align: center;">〈團 長〉</p>
<p>張 忠 植 (大韓올림픽委員會 副委員長)</p>	<p>김 형 진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p>
<p style="text-align: center;">〈代 表〉</p>	<p style="text-align: center;">〈代 表〉</p>
<p>李 學 來 (大韓올림픽委員會 常任委員)</p>	<p>장 용 (조선올림픽위원회 서기장)</p>
<p>任 台 淳 (大韓올림픽委員會 委 員)</p>	<p>김 세 진 (조선올림픽위원회 위 원)</p>
<p>曹 英 承 (大韓올림픽委員會 委 員)</p>	<p>허 혁 필 (조선올림픽위원회 위 원)</p>
<p>朴 秀 蒼 (大韓올림픽委員會 委 員)</p>	<p>김 상 부 (조선올림픽위원회 위 원)</p>

☆

龍

龍

2 . 會 議 錄

〈雙方代表 入場 및 人事交換〉

南(張忠植) : 안녕 하십니까?

北(김형진) : 예, 안녕 하셨습니다.

(記者들 寫眞撮影)

南(張忠植) : 자, 앉읍시다.

北(김형진) : 어떻게 다들 건강하십니까?

南(張忠植) : 舊正을 저희는 한 사흘 놀았습니다.

北(김형진) : 예. 어제, 그저께가 바로 음력설이죠?

南(張忠植) : 예.

北(김형진) : 음력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南(張忠植) : 저는 뭐 스키장에 가서 조용한 時間을 보냈습니다.

北(김형진) : 예.

南(張忠植) : 스키 타다가 잘못 돼 가지고 다리 다치면 會談에 못 나올
까봐요.

北(김형진) : 걱정을 하셨구만요.

南(張忠植) : 아, 그럼요. 首席代表가 스키 타다가 또 다리 부러져 가지고
서 會談에 參席 못하게 되면 안돼죠.

北(김형진) : 본래 그 예로부터 음력설에는 우리 人民들이 설을 맞으면서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이렇게 맞이하는 것도 하나의 風習입죠?

南(張忠植) : 그렇죠.

北(김형진) : 그래 우리도 이제 설을 쇠는데 지난해 깨끗치 못한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會談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南(張忠植) : 아, 그래요.

北(김형진) : 그래서 나는 이번에, 首席代表 先生은 스키장에 가셨다는데, 나는 이번에 설 한때를 大同江하고 普通江 얼음판에서 아이들하고 좀 지냈습니다.

나가 보니까 원래 이 설때는 慶事라고 더 좋아하는 건 아이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얼음판에 나가보니까 얼음지치기도 하고 또 썰매도 타고 팽이도 치고 연도 띄우고 아주 굉장했습니다.

南(張忠植) : 그런데 강물이 그렇게 어나요?

北(김형진) : 예, 업니다. 스케이트도 타고 썰매도 타고 팽이도 치고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인 것은 아이들이 음력설마다 하는 연띄우기, 그래서 정말 수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연들이 하늘을 훨훨 날고 있었는데 그 연들을 하나하나 보니까 어떻게 신통하게도 「統一」이라는 글자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그게 「統一 연띄우기」다 이렇게 名稱을 하고 배우는데, 그것을 볼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진난만한 애들까지 저렇게 統一을 갈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몽클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南(張忠植) : 이거 會談 잘 해서 單一팀 만들어지려는 아이들한테 그러한 所望을 提供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北(김형진) : 예.

南(張忠植): 그래서 이 지금 씨름이요 「民俗씨름」이라고 해서요. 근래에 씨름이 상당히 아주 人氣가 좋습니다.

거기보니까 저번에 「統一天下壯士 씨름大會」라고요. 이렇게 해서 36 强을 겨뤘습니다만 그 「아나운서」애기가 北側에서도 씨름選手들이 나와서 한번 南北間에 親善씨름競技라도 한번 가져 봤으면 하는데요.

北(김형진): 아, 옳지요. 그런 걸 빨리 하자니까 우리 이렇게 마주 앉아서 唯一팀을, 하나의 팀을 만들자는 건데 맞습니다. 이거 그런거를 빨리 하자면 우리가 오랜 期間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實質的으로 이렇게 唯一팀을 묶으면 그런 問題가 스스로가 自然的으로 解決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그렇습니다. 얼음판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좀 미끄럼질 하면서 한참 장난을 했는데, 어떻게 아마 텔레비전에 좀 나가서 그런것 같아요. 아, 이거 體育會談 團長이 여기 왔다고 소문이 나서 아이들이 새까맣게 내 주위에 몰려들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나보고 설 人事를 하면서 나보고 하는 소리가 『團長先生님! 唯一팀이 언제 構成됩니다까? 會談은 언제 합니까?』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어서 사실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會談은 지금 막바지에 있지만 요즘 진통을 겪고 있고 그래서 對答을 주기 난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밝은 얼굴에 걱정을 줄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 아이들하고 約束을 했습니다. 『이번에 내려가서 唯一팀을 꼭 成事시킬 것이다. 될 것이다』 이렇게 굳은 約束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南(張忠植): 저도 그런 質問을 많이 받았습니다.

스키장에 가니까 大學生들, 高等學生들이 잘 돼 가는 것 같다가 또 이게 잘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빨리 單一팀이 돼서 저희들한테 希望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이죠.

北(김형진) : 그래서 張先生님도 교단에 서 계시고 원래 아이들한테 한 約束이야 스승뿐만 아니라 父母들, 어른들이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南(張忠植) : 그거야 물론이죠.

北(김형진) : 그래서 나도 이번 會談場에 들어서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아이들하고 한 約束을 지켜서 역시 아이들을 밝은 얼굴보다도 더 활짝 피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없지 않는데, 여기 張先生님도 그런 부탁을 들었고 나도 또 그런 約束을 했으니까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오늘 會談을 잘 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달의 마지막 날이 아닙니까?

南(張忠植) : 뭐 努力해서 單一팀을 만드는데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참을성 있게 서로 理解하고 受容하고 讓步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北(김형진) : 어디 張先生님 설도 쇠시고 또 그런 約束도 들으시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새로운 意志를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다.

南(張忠植) : 아, 이거 빨리 單一팀이 만들어져야 나도 다른 일을 할텐데 이거 다른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 안할 수도 없고 말이죠.(一同 웃음)

北(김형진) : 다른 일이야 張先生님이나 나나 이거 다른 일 못 하더라도 民族 앞에 唯一팀 하나만 만들어 놓고 겨레에게 선물을 주면야 그 이

상 뭐 더 크게 있습니까?

南(張忠植) : 成事만 되면야 그거야 뭐 다른 일 다 잊혀두고 하죠.

北(김형진) : 成事시켜야죠. 成事하자고 마주 앉았는데 成事 안 시키면 됩니까?

南(張忠植) : 꼭 成事시킵시다.

北(김형진) : 오늘 우리 會談 좀 말한대로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하고서 잘 좀 해 봅시다.

南(張忠植) : 그럼 會談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北(김형진) : 張先生님 먼저 말씀을 하십시오.

南(張忠植) :

<우리側 첫 發言>

北側代表 여러분!

南北 雙方이 第11回 北京아시아 競技大會 單一팀 構成・參加 問題를 協議하기 위해 南北體育會談을 개최 한지도 벌써 1년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쌍방간에는 迂餘曲折도 있었지만 板門店에서 일곱차례의 本會談과 여섯차례의 實務代表接觸을 진행했으며 오늘의 第8次會談에 이르기까지 도합 열네번의 會談과 接觸을 갖게 됩니다.

南北體育會談은 지난해 말까지 단일팀구성・참가와 관련한 10개항의 基本事項에 原則的 合意를 이룩했을 뿐 아니라 단일팀 共同推進機構 構成・運營方案에 대해서도 意見一致를 보는 등 괄목할만한 進展을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會談은 合意事項의 성실한 履行을 위한 保障裝置問題만 協

議・解決하면 文案整理를 거쳐 合意書를 채택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에 접어들어 會談이 空轉을 거듭함으로써 그 展望이 不透明한 狀態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貴側이 合意事項의 履行保障에 사실상 誠意를 보이지 않는데 起因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래는 虛張聲勢의 백마디 말보다는 단 한가지라도 實踐에 옮기는 것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측이 提示한 合意事項 履行保障方案은 文字 그대로 單一팀構成을 위한 南北間의 合意事項을 하나하나 行動으로 옮길 수 있도록 확실한 保障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22일 바로 이 「통일각」에서 진행된 제 6 차本會談때 貴側 역시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를 마련하자는데 대해 同意를 표시하였습니다.

그간 우리측은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의 形式에 있어서는 별도의 合意書를 만들 수도 있고, 그밖에 다른 形態로도 그 內容과 趣旨를 明文化하면 된다는 伸縮的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履行保障裝置의 內容에 있어서도 貴側의 主張을 신중히 고려하여 여러 側面에서 融通性있는 입장을 이미 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측은 지난 제 7 차회담 때에 貴側에 提示한 제 11 회 北京아시아경기 대회 南北單一팀構成・參加에 관한 合意書(案)에 포함된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에서 貴側도 아는 바와 같이 親善交換競技, 施設事前踏査, 自己側 輸送手段 사용과 같은 내용 등이 우리측으로서는 合意事項의 성실한 履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貴側의 主張을 考慮하여 이를 削除

하는 雅量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貴側은 이제와서 이 問題를 相互 協議・解決하려는 것이 아니라 一方的인 주장만을 앞세워 相對側이 제시한 내용의 全面撤回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會談을 진행하려는 態度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單一팀에 대한 實踐意志에 근본적으로 疑問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는 處事라고 하겠습니다.

北側代表 여러분!

나는 여기서 合意事項 履行保障을 위한 우리측 제의의 趣旨를 다시 한번 설명함으로써 貴側의 理解를 돕고자 합니다.

우리측 합의서(안) 附則 7개항 가운데 貴側도 同意한 단일팀 共同推進 機構 構成・運營에 관한 별도의 合意書項目, 쌍방당국간의 保障覺書 交換項目, 合意書 効力發生項目의 3개항을 제외하면 쌍방간에 見解差異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 4개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4개항의 내용은 이미 제 6차本會談에서 貴側도 研究・檢討하기로 동의한 바 있는 用語解釋問題, 合意事項 不履行時의 措置問題, 日程遵守問題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10개항 合意內容 用語解釋問題입니다. 合意書에 사용된 용어에 解釋上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뜻을 정확하게 규정해 두는 것은 모든 合意書에 있어 보편적인 慣例이며 하나의 상식입니다.

더욱이 40여년의 分斷狀況에서 모처럼 작성되는 南北間의 합의서에 사용된 用語를 분명히 해두는 것은 이 會談代表들의 基本任務인 것입니다.

우리측이 제시한 用語解釋의 내용은 公開選拔戰時의 參觀團의 規模, 記者

團의 취재활동, 라디오·TV中繼 問題라든가 선수단구성에 있어 均衡問題의 대체적인 範圍設定 등 공동위원회에서 쌍방간에 爭點으로 될 수 있는 몇몇 用語에 대해서 그 意味와 趣旨를 분명하게 해두자는 것입니다.

둘째, 合意事項 不履行時의 措置問題입니다. 제 11 회 北京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구성·참가문제는 南北間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同大會 組織委員會 등과의 對外的 問題를 수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南北體育會談에서 北京大會組織委員會와 아시아올림픽評議會에 보낼 서한내용에 合意하고 이를 쌍방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名義로 發送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쌍방은 合意事項을 성실히 履行하는데 최선을 다하되, 합의사항이 履行되지 않을 경우에는 個別팀으로 參加한다는데 合意하였다는 사실도 밝혀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단일팀구성·참가의 推進日程 遵守問題입니다. 10개항 合意事項에는 사실상 推進日程이 대체로 明文化되어 있습니다.

단일팀共同委員會는 合意書 發効日인 1990년 2월 1일 이후 15일 이내, 즉 2월 15일 이전에 構成하며, 合同訓練은 共同委員會가 구성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 즉 3월 15일 이전에 시작되고, 選拔戰은 合同訓練 마지막 단계에서 公開裡에 실시하며, 선수단구성은 參加申請 마감일인 6월 22일 이전으로 끝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측이 제시한 推進日程이란 이같은 10개항 합의사항의 취지에 基礎하여 그 일정을 순차에 따라 분명히 정해 놓음으로써 合意事項의 履行을 보다 확실히 保障하자는 것입니다.

推進日程은 쌍방의 協議를 통해 신축적으로 調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나는 貴側 代表團이 지난 1월 24일 이른바 「南北會談 北側代表團들의 聯合聲明」에 가담하여 「自由往來의 全面開放 實現을 위한 協商會議」 운운하면서 體育外的問題를 거론하고 우리측을 中傷誹謗한데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貴側은 금년 1월 10일에 있는 제 4차 實務代表接觸에서 쌍방간에 體育外的問題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貴側 스스로 言及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측이 合意事項 이행보장장치의 일환으로 단일팀구성·참가와 관련하여 體育外的問題를 제기하지 말 것을 提示한데 대해 단일팀 共同推進 機構 구성·운영방안 속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태여 重複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와서 보면 이같은 貴側의 言行은 진실성이 없으며 합의사항의 履行保障에도 애당초 뜻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疑懼心마저 듭니다.

貴側은 작년 4월 2일에도 이른바 「北側 會談代表團 聯合聲明」에 가담하여 우리측을 터무니없이 中傷誹謗하고 會談을 일방적으로 延期시켜 南北體育會談이 7개월씩이나 열리지 못했었습니다.

貴側은 이번에 또다시 이같은 前轍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貴側이 體育人들간의 「往來와 開放의 實現」에 진정 뜻이 있다면 이 會談에서 쌍방간에 南北을 相互 往來하면서 실시하기로 한 合同訓練과 公開選拔戰 등의 이행을 保障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體育交流의 실현을 위한 保障裝置 마련을 사실상 외면하면서 「자유왕래, 전면개방」 운운하는 것은 自家撞着이 아닐 수 없습니다.

北側代表 여러분!

나는 貴側이 제 11회 北京아시아경기대회 南北單一팀構成·參加에 合意하

고 合意事項을 이행할 意志가 있다면 우리측이 제시한 合意事項 이행보장 장치에 同意하지 못할 아무런 理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貴側이 태도를 바꾸어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 마련에 誠意를 보임으로써 오늘 會談에서 합의서(안)에 대한 전반적 意見一致를 볼 수 있게 되기를 期待합니다.

北(김형진) : 물 좀 드시죠.

南(張忠植) : 예.

北(김형진) : 이제 張先生님 말씀 하셨는데 내가 基本發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南(張忠植) : 그렇게 하시죠.

北(김형진) :

〈北側 基本發言〉

장충식 수석대표!

남측대표 여러분!

우리는 온겨레가 일일 천추로 갈망하는 통일의 대망이 실현될 뜻깊은 새 해에 들어와 오늘 벌써 두번째로 본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먼저 제 8차 북남체육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통일각에 온 남측대표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금 온 겨레와 체육인들의 관심과 기대는 이 회담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올해에는 어떻게 하나 유일팀이 성사되어 제 11차 아시아경기대회에 북과 남이 공동으로 출전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민

족의 통일 의지를 과시하고 뛰어난 기량과 슬기를 남김없이 펼칠 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합의한대로 지난 18일에 열렸던 제 7차 회담때에 유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45년의 분단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하나의 명칭, 하나의 깃발과 노래를 가진 유일팀을 탄생시켜 제 11차 아시아 경기대회에 북과 남이 하나의 팀으로 출전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측도 아시다시피 지난 7차 본회담에서 우리는 시대와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인 유일팀을 겨레앞에 선물로 내놓지 못했으며 뒤이어 계속된 실무대표 접촉에서도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오늘에 와서 8차 회담을 또다시 가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10개항의 기본방안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룩하고 유일팀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세칙에 관한 합의서에 대해서도 완전 합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귀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최종합의서에 서명하지 못하고 유일팀을 탄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쌍방이 지난해 12월중에 유일팀 구성과 관련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를 이룩하고 1월중에 그 문안을 정리하여 유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최종합의서에 서명하기로 선포해 놓고도 1월이 다 지나가는 오늘까지 유일팀을 탄생시키지 못하고 있는것은 다른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귀측이 회담앞에 인위적인 난관과 복잡성을 조성하면서

유일팀의 탄생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온데 있습니다.

나는 과거지사를 가지고 시야비야 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의 상황하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간단히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귀측은 회담벽두부터 어떻게 하나 유일팀을 구성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회담앞에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난관과 복잡성을 조성해 왔습니다.

1차회담에서 우리가 선수선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자 귀측은 그것이 복잡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선발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깊이 연구하고 제기한 합리적인 안이었으나 귀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귀측이 내놓은 안대로 수정하여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귀측은 3차회담때 한 말과는 달리 4차회담 때에는 태도를 돌변하여 18개항이나 되는 선수선발의 구체적 방법을 들고나왔으며 5차회담 때에는 선수선발의 공개성 문제를 새로 또 들고나와 문제토의를 지연시켰습니다.

사실상 귀측의 이러한 행동은 옳은 회담자세가 아니었으며 문제토의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편에서도 겨레가 바라는 유일팀을 성사시키기 위해 귀측의 행동이 부당하고 고의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모든것을 유일팀 구성에 복종시키는 견지에서 귀측의 제안들을 대체로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량을 보여 많은 문제들에서 합의점을 모색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귀측은 그후에도 미결문제로 남아있는 유일팀 단장문제와 공동사무국 장소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부당한 주장을 끝끝내 고집하는 방법으

로 유일팀 구성문제를 무한정 지연시키려했습니다.

더욱이 귀측은 유일팀 명칭문제가 다 합의된 이후에 와서 중국어 표기문제를 들고 나와 또다시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습니다.

사실상 그때 귀측의 행동을 보고서는 유일팀 구성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유일팀을 성사시키려는 일념에서 지난해 12월 22일 가지었던 제6차 회담때에 귀측의 주장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못되지만 미결로 남아있던 선수단 단장문제를 비롯한 몇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귀측의 안을 대범하게 받아들이는 대국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10개항의 유일팀 구성방안에 대한 완전합의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일팀구성 문제해결에 복종시켜 나가는 우리측의 성의있는 노력의 뚜렷한 표시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0개항의 유일팀 구성방안을 쌍방이 합의본 것은 북남 체육회담 역사상 전례가 없는 획기적인 사변이었고 북과 남이 다같이 기뻐해야할 경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측은 기본방안이 완전히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합의된 것이 아니라고 우겨대면서 달가와 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귀측의 안에 동의한 문제에 대해 연구도 하지않고 동의한다느니 동의한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느니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시비해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지어는 유일팀 명칭을 중국어로 표기하는 문제가 합의된 이후에도 귀측은 「고려」로 표기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또다시 들고나와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내외여론이 한결같이 인용하고 있는바이지만 지금까지 유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10개항의 기본방안이 완전히 합의되고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세칙에 관한 합의서도 완전히 합의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아량과 양보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6차 회담에 이르러서는 유일팀 구성·참가문제가 확정적인 것으로 되었으며 회담앞에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차 회담 이후 남은 문제는 10개항의 기본방안과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세칙에 대한 문안을 정리하고 합의사항의 리행을 담보하는 보장장치 문제를 토의하여 서명하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지난해 기본문제 토의를 결속하고 적어도 1월중에 공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말은 해 놓고도 지난해의 마지막 회담이었던 6차 회담때에 와서 이른바 보장장치를 토론해야 한다고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쌍방의 유일팀 구성을 위한 기본합의서들에 서명을 하기로 한 7차 회담을 일주일 앞둔 1월 10일에 열린 제 4차 실무대표 접촉에서 무려 37개 항목의 새 안을 내놓으면서 그것부터 토의하자고 하였습니다.

물론 회담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이러저러한 안을 도중에 내놓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기에 어떤 내용의 안을 내놓는가 하는데 따라서 그것이 진실로 문제토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될 수 있고 반대로 문제토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회담앞에 난관을 조성하고 지연시키기 위한 것으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지난 1월 10일에 있었던 제 4차 실무대표접촉 때에 귀측이 내놓은 부칙은 분명히 회담을 지연시키고 난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칙내용이 본 회담에서 토의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정과 유일팀구성 문제토의가 기본상 다 끝남으로써 유일팀을 선포하게 된 막바지에 와서 제기한데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측은 지난 세차례의 실무대표접촉과 한차례의 본 회담에서 귀측이 부칙이라는 것을 철회하고 빨리 유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와 유일팀 공동추진기구 구성·운영세칙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합의사항 리행보장장치 문제 토의를 결속함으로써 유일팀의 탄생을 세상에 선포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귀측은 부칙을 토의하기 전에는 서명할 수 없다고 고집을 쓰면서 합의서 문안정리를 반대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일팀의 탄생을 지연시키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습니다.

이제 와서 귀측은 어떤 리유와 구실로서도 유일팀 구성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있는 자기의 의도를 가리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측대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제 또 물러서게 된다면 대화는 했어도 열매를 거두지 못했던 60년대와 70년대 체육회담의 불미스러운 전철을 다시 밟게될 것이고 분열의 고통으로 명든 겨레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기는 죄를 짓게될 것입니다.

겨레가 바라고 시대가 요구하는 유일팀 구성문제는 우리가 회피할 수 없

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어떤일이 있어도 유일팀은 성사되어야 하고 겨레의 염원은 실현되어야 합니다.

제 11차 아시아 경기대회가 하루하루 눈앞에 박두해 오고 있는 조건에서 이제는 논쟁을 벌일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일이 있어도 오늘 회담에서 문제토의를 완전히 결속하고 최종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유일팀 구성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온겨레와 모든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우리 대표 10명에게 부과한 중대한 과업입니다.

이 과업은 실행해도 되고 실행하지 못해도 되는 그런 녹거리과업이 아니고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시대와 민족의 염원입니다.

시대와 역사앞에서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는 우리 대표들은 북이고 남이기 전에 민족사적 과업에 충실한 조선의 체육인으로서 모든것을 유일팀을 탄생시키는데 북중시키는 투철한 자세와 립장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오늘 회담에서 귀측이 내놓은 리행보장장치 문제들도 역시 철회하고 유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10개항 합의서와 유일팀 공동추진기구 구성·운영세칙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합의사항의 성실한 리행을 보장하는 쌍방 올림픽위원회 합의서와 쌍방 당국의 보장각서를 토의·채택함으로써 민족의 첫 유일팀의 탄생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까 張先生님 몇가지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張首席代表가 아까 基本發言에서 履行保障裝置問題에서 附則이란 말을

없애고 事實上 用語解釋과 또 別個팀으로 參加할데 대한 書翰을 보낼데 대한 問題, 이런 問題들을 다시 提起했습니다.

事實上 貴側의 基本發言을 들어보면 附則이란 말만 없앤 것이지 本質的 內容에서는 아무런 變化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貴側은 아까 지난 時期 貴側이 提起했던 施設踏查班問題, 親善交換 競技問題를 撤回한 것이 讓步라고 했는데 이거는 事實上 會談議題와는 아무런 關聯이 없는 問題이므로 應當한 것이었습니다.

貴側은 事實 오늘 附則이라고 하는 外皮를 벗겼다고 해서 內容이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事實上 基本發言에서도 提起했었지만 貴側이 會談의 結束段階에 와서 附則이라는 障壁을 쌓아놓고 唯一팀構成의 誕生을 막으려 하는데 目的을 둔 것으로 해서 두차례의 實務代表接觸과 今年에 들어와서 한차례 本會談과 또 實務代表接觸을 空轉시켰습니다.

事實上 오늘 우리는 그래도 貴側이 우리가 알아들을만큼 附則에 包含된 內容들을 撤回하고 雙方이 이미 合意된대로 唯一팀構成・參加에 대한 基本合意書와 또 共同委員會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 文案을 整理하고 署名할 것으로 期待했는데 여전히 本質적으로 같은 內容을 되풀이한데 대해서 매우 遺憾스럽게 생각할 뿐 아니라 事實상 이러한 主張은 오늘 會談의 前途에 대해서도 疑心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우리 立場을 明白히 하건데 雙方이 이미 合意한대로 唯一팀構成・參加에 관한 基本合意書와 共同委員會의 構成・運營細則에 관한 文案整理를 하고 署名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雙方 사이에 이미 合意한 事項일 뿐만 아니라 온 거래와 온

나라 體育人들, 世上 사람들 앞에 約束한 問題입니다.

雙方이 合意하고 約束한대로 오늘 會談에서 合意書에 署名하는 것을 어
킨다면 겨레에게 失望을 주고 또 나아가서는 온나라 體育人들과 人民
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基本合意書부터 文案整理하고 署名하도록 하는 것은 이
미 雙方사이에 合意된 問題이므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
는가 안하는가 하는 것은 唯一팀 誕生에 關心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가늠하는 試金石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 또 貴側 首席代表先生이 아까 1月 24日 共同聲明問題를 舉論했
는데 이것은 貴側 首席代表先生이 잘못 理解한 겁니다. 이 全面開放, 自
由來往을 支持하는 것은 體育外的 以前的 問題입니다. 全面開放, 自由來往
은 온 겨레가 다 이것을 要求하고 있고 貴側에서도 그것을 歡迎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條件에서 그것을 貴側에서는 걸고 들었는데 이 걸고드는
自體가 會談에 外的問題를 紹介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事實上 우리는 이미 雙方이 合意한대로 會談의 막바지
에 와서 複雜性を 除去하고 이미 約束한대로 文案整理를 합시다. 이것
은 우리의 一方的인 主張이 아니라 이미 貴側과 合意된 問題입니다.

南(張忠植): 나도 얘기 좀 할까요?

北(김형진): 예, 말씀 하십시오.

南(張忠植): 지금 金團長께서 우리側이 마치 會談을 延期시키고 單一팀
構成을 피하고 있다고 이렇게 責任을 우리한테 轉嫁를 하고 있습니다.

眞實로 우리는 單一팀을 만들기 위한 眞心에서 어떻게든지 本會談에서
의 우리 代表로서의 本分을 다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單一팀을 構

成할 수 있는 그러한 機能을 共同委員會에서 發揮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우리가 附則을 提案했던 겁니다.

지난 會談過程에서의 여러가지 複雜한 서로의 對話를 다 여기서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그 6次會談때 貴側에서도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에 대해서 同意를 해오셨습니다.

또 그러한 必要性을 느끼셨기 때문에 저는 同意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의 南北體育會談이라고 하는 것은 單一팀을 構成하기 위한 目的에서 우리가 모였지 10個事項 合意만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이거죠.

10個事項이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單一팀을 만드는데 있어서 第一步的인 段階라고 생각합니다. 二步的인 段階라고 하는 것은 本會談 代表뿐만 아니라 兩側이 單一팀을 構成하는데 있어서 서로가 合意事項을 履行하겠다고 하는 決意가 온 거래앞에 나타나지 않고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말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거래뿐만 아니라 온 世界가 確認할 수 있도록 그 履行保障에 대해서 雙方이 誠意를 表示함으로써 인해서 이것은 單一팀을 構成하는데 二段階로 發展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만 會談을 回避하는, 아마 우리가 會談을 回避하는 問題라고 생각한다면 더 複雜多端하게 우리가 問題를 提起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提起했던 問題라고 하는 것은 複雜性을 가져온것이 아니라 지난 7次會談때도 내가 말씀했습시다마는, 영성하게 設計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집을 지을때 木手들간에 서로 이렇다 저렇다 해서 是非가 벌어져 가지고 工事도 못하게 되는 이러한 그 어려운 過程을 만들어서

는 안되겠다. 지금부터 이 設計圖를 잘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려는 지난번에 우리가 7次會談때 親善交換競技問題라든가 또한 우리側의 輸送手段問題라든가 雙方의 施設 事前 踏査問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讓步를 했어요. 그 讓步한 것은 讓步했다고 그것은 貴側에서 받아들이셔야지요.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할것 같으면 그러면 實際 이제 남은 것은 그 附則條項의 7가지 가운데 貴側에서도 同意한 바 있는 單一팀 共同推進 機構의 構成·運營 方案에 대한 別途 合意書에 대해서는 貴側에서도 同意한 바 있지 않습니까?

또한 雙方間에 아니 保障覺書交換問題라든가 또는 合意書에 대한 効力 發生 같은것, 이것 제껴 놓으려는 實際 거기에서 우리가 意見이 결국은 다른 것은 네가지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가지項이 정말 單一팀을 構成하는 그러한 意志가 貴側에 分明히 있다고 하려는 이것이 問題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려는 우리가 10個事項에 대해서 合意를 해놓고 共同委員會에 가서 雙方代表 열사람씩 해서 20名이 서로 意見이 달라져 가지고서, 그 用語 上の 問題가지고서 큰 衝突이 일어난다든가 또 그것이 會談이 決裂된다고 하려는 것처럼 우리가 10個事項 合意를 해놓고 單一팀을 만들기 위한 그 10個月 동안에 近一年에 가까운 努力에도 不拘하고, 그 誠意에도 不拘하고 會談의 有終의 美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려는 이건 우리 會談에 臨하는 代表들의 責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雙方間에 共同委員會 넘어가기에 앞서 用語上的 解釋은 分明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選拔戰에 대한 範圍問題라든가 또는 거기에 있어서

公開選拔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概念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또는 均衡을 잃지 않는 問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定義를 내릴 것이냐 하는 것을 서로 우리 열사람간에 合意를 해서 共同委員會에 넘겨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았을때 本會談에서 제멋대로들 解釋을 해가지고서 本會談에서는 그러한 뜻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 共同委員會에서는 어떻게 解釋한다. 서로 雙方間에 그렇게 紛爭의 씨앗을 우리는 심지 말자. 그렇게 해서 單一팀을 만드는데 좀 더 效果的인 그러한 進行을 바라는 뜻에서 우리가 내놓은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體育會談에, 우리 民族間에 利害關係가 있습니까마는 이것이 만약에 單一팀이 만에 하나라도 單一팀이 안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北京大會에 參加 안하느냐 하느냐 이것은 北京側에 있어서도 굉장히 關心事요, 또한 그들이 中國側에서 主催하는만큼 南北單一팀이 합치는걸 바랄것입니다.

그래 만약에 안된다고 생각했었을때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것은 그쪽에서 궁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측의 態度를 보이자고 하는것이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이것은 會談을 깨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행스럽게 單一팀을 만드는데 온 神經을 쓰고 精誠을 다 바치고 單一팀을 만들고자 했을때는 個別팀을 안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履行保障裝置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履行保障裝置를 안 받아 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때는 貴側에서는 單一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個事項만 만들어놓고 그

리고 對內外的으로 정말 소리만 높여서 單一팀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誠意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宣傳的인 立場에서 이 會談을 進行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單一팀 만드는데 이 履行保障裝置야말로 이것은 不可缺의 要素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北(김형진) : 예, 張先生님. 내 한가지 물어봅시다. 10個項 合意書 用語解釋 있지 않습니까?

南(張忠植) : 예.

北(김형진) : 그 用語解釋이, 그 用語解釋을 전번엔 別途 合意書로 하자 이렇게 提議했었죠 附屬合意書를요?

南(張忠植) : 예, 예.

北(김형진) : 이번에는 오늘 提起한 案은 뜻을 같이하면 된다 文案整理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南(張忠植) : 그러한 形式은…….

北(김형진) : 아니, 아니 글썄 그렇게 말씀하셨죠?

南(張忠植) : 예, 예.

北(김형진) : 그러니깐 10個項 用語解釋, 貴側에서 提起한 用語解釋을 말하자면 合意, 뜻으로 合意 못되면 10個項을 採擇할 수 없다 이 뜻이겠습니까?

南(張忠植) : 그야 물론 用語上, 우리가 생각하는 그 用語解釋과 貴側에서 달리 解釋한다면 그것이 거기서 어떠한 衝突이 일어날텐데요. 意見의 衝突이 일어날텐데요.

北(김형진) : 예. 그렇게 하면 10個項 合意書를 採擇 못한다 그거죠?

南(張忠植) : 그건 前提條件이죠.

北(김형진) : 못한다 그 뜻입죠? 그러니깐 別途 附屬合意書를 採擇하자는 것과 뜻을 같이 하자는 差異點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습죠?

南(張忠植) : 뭐가 같아요?

北(김형진) : 아니 貴側에서는 전번에 用語解釋을 附屬合意書로 採擇하자 이렇게 署名하고요. 그런데 오늘은 附屬合意書를 撤回하고 文案整理할 때 뜻을 같이 하자.

南(張忠植) : 내용과 같은 趣旨만이 明文化되면 난 相關없다 이거예요.

北(김형진) : 예. 그러니깐 그 내용이 合意 못되면 열개항 合意書를 採擇 못한다 이 뜻입죠?

南(張忠植) : 單一팀 만들수가 없지 않습니까?

北(김형진) : 아, 글썄 그 뜻입죠?

南(張忠植) : 예. 單一팀이 안되지 않습니까?

北(김형진) : 그럼 내 좀 얘기 합시다.

이건 그러니까 事實上 貴側에서 오늘 提起한 案은 10個項 基本合意書 用語解釋을 附屬合意書로 하자는 것이나, 오늘은 그 外皮를 달리해서 文案整理할 때 뜻을 같이하고 趣旨와 그 뜻을 같이하면 된다 하는 것은 本質上 같습니다. 종전 意見과 다른것 없습니다.

예하면 首席代表先生은 이제 基本演說에서 第4項 (나)項目에서 「選拔戰은 公開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貴側은 用語解釋에서 「公開적으로 한다」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데서 參觀團, 記者團, 支援人員 規模 또 라디오·텔레비 中繼問題, 選手團 規模問題 이걸 合意해야 4項의 (나)項目은 合意하고 수표할 수 있

다 이 뜻을 明白히 했는데.

그렇다면 事實上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길로 갑니까? 原點으로 돌아 갑니다. 10個項은 애써서 合意해 놓고 用語解釋이 合意안된다고 10個項이 合意된 것을 採擇 못하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10個項을 되돌아 앉아 다시 討論하자, 이 뜻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다음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9月달까지 11次 아시아競技大會 開幕날까지 10個項을 왈가왈부하며 討論하자는 뜻인데 이것은 不當한 論理입니다.

南(張忠植): 아니 그러면 公開選拔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北(김형진): 가만 좀 계세요, 가만 좀 계세요. 내 말씀 들은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부터 아홉달동안 다시 또 10個項을 한 조항씩 討論하자는 心算인데 이런 뜻을 알지 못하고 提起한 것 같은데 좀 서툽니다.

南(張忠植): 아네요 그건.

北(김형진): 그 다음 貴側에선 附屬合意書…….

南(張忠植): 公開, 公開選拔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貴側에서는 말로만 받아들이고 內容面에서 否定하는거나 마찬가지로요.

北(김형진): 가만 계세요. 張先生님, 내 말 들으세요. 그러니까 張先生의 뜻은 뭐인가. 附屬合意書라고 하던 것을 이번에는 뜻을 같이하고 趣旨를 같이 한다는 이런 말하자면 이런걸 둔갑시켜서 새 옷을 입혀 登場시켰는데 內容은 같다.

그러니까 이걸 結果的으로 이미 合意된 열개항의 運命은 用語解釋, 貴

側이 말하는 用語解釋이 合意돼야 決定된다는 뜻과 무엇이 됩니까?

南(張忠植) : 아니, 거 혼자 다 말씀하시는데.

北(김형진) : 다음에 뒷때문에 文項이 貴側이 말하는 것처럼 거의 다 合意됐는데 이날에 와서 基本合意書 採擇을 자주 이러 저러한 複雜한 問題를 提起하면서 回避합니까? 뒷이 負擔이 되고 걸립니까?

南(張忠植) : 그런데 아니 貴側에서는 用語解釋上 用語를 解釋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나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北(김형진) : 그다음 가만 좀 계세요. 아 張先生! 아니 오늘 좀 나는 張先生 말할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明白히 貴側이 共同委員會에 가서 討議하기로 合意한 問題를 구태의연하게 끌고 나와서 用語合意書 4項에 밝혀서 討議하자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묻고 싶은 貴側의 底意일 뿐만 아니라 제가 對答을 하지요 그 底意를.

貴側이 會談 막바지에 와서, 目的은 會談 막바지에 와서 署名하는 것을 遲延시키고, 署名하는 것을 遲延시킨다는 것은 唯一팀 誕生을 遲延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明白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南(張忠植) : 내가 좀 말좀, 내가 좀 말좀 할까요?

北(김형진) : 예, 말씀하세요.

南(張忠植) : 그러면 貴側에서는 10個項은 合意해 놓고 結局은 論爭할 수 있는 餘地는 共同委員會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單一팀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 정도 共同委員會에서 이것은 單一팀을 안만들도록 할수 있겠다 이러한 底意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用語解釋을 여기서 서로 合意해 놓고 共同委員會에 넘어가야 共同委員會가 잘 되겠죠? 共同委員會에 가서 서로 言爭이 붙을 수 있는 소지를 남겨 놓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單一팀을 만들라고 하는 본래 趣旨와는 달리 결국 이것은 10個事項을 合意했다 해놓고 결국은 共同委員會에 가서 이러한 用語上的 問題가지고서 雙方間에 서로 紛爭이 나가지고, 서로 意見이 對立되어 가지고서는 單一팀 못만들수도 있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며는 정말 單一팀을 만들겠다고 하며는 아 이것 公開選拔戰이라는 것은 우리 이러 이러한 概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과연 南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單一팀을 만들고자 하는 誠意가 있다고 하며는 그 우리가 묻지 않더라도 用語上的 問題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北(김형진) : 張先生! 아 公開戰으로 한다는 말 뜻을 몰라요?

南(張忠植) : 예?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가 提示한 問題가 그거 우리가 參觀團 問題라든가 또는 記者들의 自由스러운 取材活動 問題라든가 아니 이러한 問題가 뭐가 어렵습니까?

北(김형진) : 張先生! 그것은 共同委員會에서 討議하게 되어 있는 項目이 아니에요? 參觀團問題, 記者取材問題 項目이 있어요 項目이. 張先生! 그거 왜 자꾸 그래요?

南(張忠植) : 그런데 왜 못받아들이시나요 이거?

北(김형진) : 왜 共同委員會에서 討論하게 된 問題인데 왜 이제 合意만 하고 수표하면 될건데 왜 끄집어 내서 여기서 하자는가?

北(장웅) :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南(任台淳) : 討論하자는데 아니고 우리가 뜻을 분명히 하자는 것 아닙니

까?

北(김형진) :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장웅대표 동지가 이제 理解 못하는것 같은데 좀 얘기 좀 들으십시오.

北(장웅) :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貴側의 오늘 首席代表先生 基調發言을 듣고 보면 지금 쉬어빠진 국 건데기는 그냥 두고 국물만 조금씩 조금씩 덜어내는 格이란 말입니다. 比喩해서 말을 하면.

지금 唯一팀 會談이라는 이 有機體에다가 貴側은 지금 이 腫瘍, 癌을 갖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것 쓸데없는 것, 붙여 놓은것 手術하는거고 貴側은 계속 이것 붙여 놓겠다는 건데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唯一팀 構成을 위한 會談이 왜 지금 오늘도 甲論乙駁하면서 여기서 會談하고 있는가? 왜 뒷 때문에? 그리고 어느側 때문에? 이 겁니다.

唯一팀 構成을 위한 會談이 지난해 12月 22日까지 잘 되어 왔습니다. 물론 難關이 있었지만 잘 되어 왔는데, 이거이 合意가 이룩되고 다하는데 1月 10日에 와가지고 지금 이 複雜한 問題들을 내놓았던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徹底히 障礙提案이라고 생각합니다. 障礙提案이라고.

아마 이것만 안 내놓았으면 지금쯤은 共同委員會 準備作業, 共同事務局 設置 準備作業하고 아마 學來先生이 오시겠는지, 任先生이 오시겠는지 平壤에 오실 準備를 할 거고, 우리 세진代表가 가겠는지 갈 準備를 할거고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누구때문에 무엇때문에 지금 오늘도 여기 앉아서 지금 甲論乙駁하고 있는가? 아 이거야 明白하지 않습니까?

南(李學來) : 저 장선생.

北(장웅): 아 제가 말씀 다 드리고 잠깐만 계십시오.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履行保障裝置問題인데 그 貴側에서 지금 附則이라고 하는 것의 內容과 形式은 바꾼다 하더라도 討議를 해서 協議를 하자 하는 問題인데, 이거 顯微鏡的으로 한번 들여다 봅시다 顯微鏡的으로.

貴側이 내놓은 그 案들 보면 明白히 共同委員會 所管이 아니면 障礙 提案이다. 實例를 들겠습니다. 用語解釋 2項에서 貴側은 『選拔戰은 合同 訓練 마지막 段階에서 公開的으로 實施한다』를 解釋을 했습니다. 解釋하면서 選拔戰때 南北을 往來하는 人員의 規模는 얼마, 北京아시아競技大會 參加定員數 程度로 하고 여기다 해놓고 이걸 이미 合意된 겁니다. 여기다 다 넣었습니다. 支援人員, 參觀團, 記者團 人員數까지 다 넣었습니다.

나는 이거 公開로 實施한다는 말이 이렇게 擴大·訛傳되는줄 몰랐습니다. 지금 訓民正音이 나온지 아마 이젠 4年 있으면 5百年이 되는데, 世宗大王의 冢이 地下에 있다면 지금 기절초풍할 겁니다. 이거 公開的으로 實施한다는 말이 이렇게 擴大·訛傳 되는 것인지, 이거이 履行保障裝置입니까? 이거는 制限的인 性格입니다. 障礙提案이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讓步問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貴側에서 讓步라고 했는데 거저 털만 뽑습니다. 지금 하나 하나 털을 뽑는데 讓步란 말은 事實上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 뭐 唯一팀 構成을 위한 合意書 署名을 障礙한 障礙提案들을 貴側 自身이 내놓았던걸 形態를 바꿔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事實上 貴側이 天秤臺 위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 보고 지금 誠意요, 이것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唯一팀이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 天秤臺에 올라서 있다.

이미 實務代表接觸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온 거래와 世界가 우리를 審判합니다. 그래서 그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이거 本來 우리 討議하고 合意했던대로 10個項 빨리 署名하면 됩니다.

이 署名해서 무슨 必要있느냐 張先生님 말씀하시는데 署名하면 民族앞에 誓約하는겁니다. 하면 唯一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믿지 않습니까?

南(李學來) : 장선생 얘기 다 했습니까?

南(張忠植) : 흥분하지 마시라요.

北(장웅) : 흥분하는게 아니라 이게 안타깝다 말입니다. 아 이거 오늘도 또 論議를 하는데.

南(李學來) : 장선생, 오늘보니까 굉장히 톤이 높아지셨는데 血壓 올라가면 健康에도 안 좋고 그래요 조용히 합시다.

김단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質問하겠습니다.

10個項을 다 合意를 해 놓고 왜 이제와서 판소리냐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雙方이 이미 合意했다고 하는 10個項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89年度 12月 22日날 있었던 第6次 本會議때 우리가 내놓은 案을 貴側에서 뭐 100% 受容하겠다고 그러셨죠?

그때 우리가 내놓은 첫발언문하고 共同委員會 構成・運營 方案에 대해서 내놓았는데 그것을 검토하시면서 좋다고 다 받아 들이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말하시는거죠?

北(김형진) :李先生이 잘 理解 못하네. 實務代表接觸 5次 말씀하시는데, 10個項이야 合意事項이 세번씩 서로 주고받고, 對比表 5번씩 하면서 아홉달동안 다듬고 다듬고 해서 合意된거고 그다음에 또 10個項 우리가 合

意書낸걸 보라요, 貴側의 畫하나 單語하나 다 그대로 構成되어 있습니다.

南(李學來): 아니 제가 質問드리는건, 그런것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깐 제가 알기로 6次會談때 내놓은 그 案을 다 받아 들였으니깐 이제 合意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고.

그때도 서둘러서 말씀을 하셨죠? 이제 合意가 다 됐으니깐 世上에 공포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그때 우리側에서는 어떻게 이게 合意된거나 이 내용이 좀더 誠實하게 檢討가 되고 여기 前提條件으로 제시한 問題들이 다 合意가돼야 合意가 된것이지 一方的으로 合意가 됐다고 하는것은 問題가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한걸로 기억을 합니다.

北(김형진): 그래 合意 안됐다는거죠? 아니 學來先生, 또 合意 안됐다는 소리죠?

南(李學來): 아니요. 合意안됐다는거 보다는, 아니 얘기들어 보세요.

北(김형진): 責任的으로 말하십시오.

南(李學來): 아니 제가 우리 장선생이 길게 말씀하는거 들었는데.

北(김형진): 責任的으로 말해야 됩니다.

南(李學來): 사실 우리가 아까도 1970年代 南北體育會談 말씀을 하셨습니 다만 그동안에 여러차례에 걸친 南北體育會談을 우리가 했지만 모두 다 失敗를 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떡하든지 이번 南北體育會談만은 꼭 成事를 시켜서 김단장님 누누이 말씀하시듯이 民族앞에 큰 膳物로 바치겠다는 意志를 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로서는 적지않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體育會談에 積極的으로 臨해 왔던게 事實입니다.

그런데,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데 南北體育會談이 그야말로 마지막 단

계에 와서 말이죠, 이제 정리해야 할 단계에 와가지고 뭔가 석연치 않은 방향으로 霧圍氣가 흐려지고 있는것 같아서 꽤나 마음이 아픡니다.

貴側에서 얘기는 이제도 누누이 말씀하시듯이 南北體育會談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理由가 10個項을 다 合意해놓고 별도로 恊을 하나 더 내놓기 때문에, 그 附則이라고 하는걸 내놓았기 때문에 이게 안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6次會談때 내놓은 案을 貴側이 다 전면 수용을 했으니 까 이제 다된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 6次會談 때에 우리가 攄를 提案을 했고 또 貴側에서는 어떠한 約束을 했으며 그후에 會談양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關係文獻을 根據로 하여 아주 實證的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장대표는 현미경적으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혹시 잘못 기억을 하나 하고 6次會談때 첫發言文하고 關係文獻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關係되는 것만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6次會談때 첫 發言文에서 저희가 이런 말을 했어요. 『雙方間에 基本事項에 대한 意見一致가 이루어져 合意書를 採擇・交換하려면 合意事項의 誠實한 履行을 保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保障裝置라고 하는게 뭐냐 여기 여섯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째가 選手團 호칭문제에 있어 中國語 表記問題, 두번째가 選手選拔에 있어서 採점종목의 細部種目別 選手參加에 관한 問題, 세번째가 選手團 構成에 있어서 團長을 1名으로 할것이나 2名으로 할것이나

하는 問題, 그다음에 네번째가 共同事務局의 設置場所를 어디로 할것이나 하는 問題 그리고 다섯번째

北(김세진) : 그게 다 保障裝置라는 겁니까, 그런 問題들이?

北(허혁필) : 그게 어디 保障裝置입니까?

南(李學來) : 아니 아니 保障裝置가 이 案에 나와요. (北側代表 騷亂)

그다음에 다섯번째가 뭐냐하면.

北(허혁필) : 혼돈을 했구만.

北(김형진) : 學來先生, 좀 정신을 가다듬으시요.

南(李學來) : 아니 아니 얘기들어 보시요, 다섯번째가 뭐냐하면 單一팀 共同推進機構의 構成・運營에 관한 별도 規定問題 그리고 여섯번째 지금 우리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合意事項의 誠實한 履行保障問題, 다시 이 얘기해서 이 여섯가지 事項들이 열개의 基本事項 合意 이전에 合意・決定되어야 할 前提條件이라고 하는것을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貴側은 그럼 어떻게 얘기했느냐, 뭐 조금있다가 제가 말씀드릴텐데 그 以前에 우리가 合意事項의 誠實한 履行保障 問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提示를 한바가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 했느냐 하면 『雙方合意事項의 誠實한 履行保障에 대한 信賴를 內外的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合意事項의 用語定義, 單一팀 構成・參加에 관한 日程의 遵守, 體育外的 問題와 불연계 그리고 合意事項 不履行時의 措置問題 等에 대해서 合意하고 이를 雙方 當局이 保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案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提示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貴側에서도.....

北(김세진) : 學來先生, 제기했는데 그 以後에 여러 차례에 걸쳐 그거는 履行 保障裝置가 아니다 하는게 명백하게 다 됐는데 또 자꾸만 그래요.

南(李學來) : 내애기 들어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貴側은 어떠한 反應을 보였느냐, 貴側에서도 肯定的인 反應을 보였어요. 이와같은 몇가지 事項들이 열가지의 基本事項을 合意하기전에 이루어져야 될 前提條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을때, 첫 發言文에서 얘기했을때 貴側에서도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딴 얘기할까봐 會議錄까지 가지고 나왔는데요. 貴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貴側이 제기한 이 保證問題를 理解하고』 理解한다고 그랬어요. 『理解하고 역시 철저히 貴側의 要求대로 이 項을 우리가 合意 본 10個의 細則의 遵守를 위해서 확고히 擔保한다는 것을 다시 명백히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會議 끝마무리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하면 이런얘기까지 했어요. 張先生님, 우리 首席代表님한테 하는 얘기였습니다. 『張先生님, 우리 모든 意見을 實務代表接觸에서 해 보니까 아주 좋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아까 난 처음 들은 말이돼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合意事項履行을 위한 保障裝置 이것도 實務代表接觸에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討論합시다.』 貴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10個項, 10個基本項을 合意하기 이전에 前提條件으로서 이러한 것들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提案했을때 貴側에서도 그것 妥當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實務代表接觸에서 하자는 얘기를 貴側에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實務代表接觸에 誠實하게 그 內容을 다듬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貴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貴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 가지고 나온게 뭐냐하면 이거였어요, 결국은.

「合意事項을 위한 合意書」 이래 가지고 『11次 아시아경기대회 唯一팀 構成・參加를 위한 南北體育會談 合意事項을 誠實히 履行하며 訓練이나 競技參加를 중지 또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確約한다』고 하는 이런 아주 피상적인, 責任질 수 없는 이러한 內容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國務總理線에서 이제 이와같은 南北體育會談 雙方代表間에 合意事項이 誠實히 履行되도록 積極 支援・協力할것임을 確약한다고 하는, 擔保한다고 하는 이런것만 가지고 나왔어요. 具體적인 4가지 項에 대해서는 전혀 言及이 없이 해가지고 나왔단 말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貴側이 정말 이 南北體育會談을 成事시킬려고 하는 意志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영 信賴感이 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단장님을 비롯한 貴側에서 장웅代表께서도 아까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6次會談때에 우리가 約束한대로 10個 項이 合意가 됐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以前에 우리가 해야 될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마 認定안하면 안될것입니다.

北(김형진): 가만 내가 좀, 이제 學來先生이 이야기했는데 保障裝置, 貴側에서는 6次會談때에 基本發言에서 提起했어요.

南(張忠植): 提起했죠.

北(김형진) : 가만있어요. 提起했는데 合意된거 없어요, 슬쩍 貴側은 비쳤습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南(李學來) : 아니 우리가 분명히 이거를 提示를 했고 貴側에서 우리가 提示를 한거를 100% 다 수용하겠다고 그때 그리잖았습니까?

北(김형진) : 가만있어요, 가만있어요. 合意書 履行保障裝置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共同推進機構 構成과 運營細則이 當局의 保障覺書를 交換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면되지 또 무엇이 必要하단 말입니까?

기억나십니까? 물어봤죠, 그러니까 首席代表先生 『물론 當局의 保障覺書도 있어야 하고 또 올림픽委員會의 保證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깐 내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實務代表接觸에서 討議합시다』 아 이것이면 족한 것이지, 아 이것이면 족한 것이지, 여기에 무슨 다른것이.

그래서 우리 세진代表先生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北(김세진) : 具體적으로 내 이야기 하겠으니까 좀 잘들어 주시오.

이제는 首席代表先生이 뭐 唯一팀을 할 의사가 우리가 없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學來先生도 뭐 이렇게 된데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이러한 말을 거기에서 하겠는가. 나는 두가지 問題에서 거기서 理解를 잘하셔야 할 問題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인가 첫째는 우선 貴側에서 會談 全過程에서 討議되고 있는 또 合意되고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 말하자면 우리 代表들이 會談에 充實하자면 무엇을 어디에까지 얼마만큼 하면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問題들에 대한 理解錯誤로 부터 나온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두번째는 우리가 唯一팀을 하자면 많은 일이 있지만 우리 代表들이 무

스일을 해야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자고 했는가 하는 것들은 이미
합의한 그 합의事項 履行을 똑똑히 하지 않은데 그런 原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具體的으로 하나 하나 說明하겠습니다.

우선 貴側에서 理解錯誤가 뭐인가? 지금 首席代表先生이 唯一팀을 하
자면 많은 일이 있는데 이 일들은 우리가 다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共
同委員會 단계도 關係를 하지말고 우리가 다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렇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또 무엇까지 얘기를 하는가? 段階論을 이야기 했습니다, 1
段階는 오늘 會議에서 할꺼요 2段階는 共同委員會에서 할꺼요 3段階는
무슨, 이렇게 되면 3段階가 있을거고 4段階가 또 있을거고 이렇게 아
마 段階的으로 내놓으실라고 하는데 우선 우리 이 會談은 우리가 해야
할 1段階 內容을 명백하게 理解를 하시라 지금, 理解錯誤다 理解錯誤.

물론 唯一팀을 構成해서 11次아시아 大會까지 參加하자면 할일이 많습
니다. 할일이 많지만 우리 代表들이 나와서 해야할 事業이 限界가 있습
니다. 이 限界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限界라는게 바로 唯一팀構成方案
열個項 이것을 合意해 놓는게 우리가 해야 할 말하자면 任務입니다. 限
界, 事業內容으로 限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1項 名稱問題, 2項 깃발問題, 3項 노래問題, 4
項 무슨 選手團構成問題, 5項 訓練問題 죽해서 아홉個 項까지 우리가 規
定을 하고 이외 問題는 여기다, 10.其他 『其他 唯一팀 問題와 關聯되는
問題는 共同委員會에서 協議・決定하자』 이렇게 여기다 박고 合意를 했
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아홉개 線까지 解決해야 할 問題들 다 解決해 놓

는 것이 우리 代表들의 任務고 여기에 充實하는게 말하자면 任務에 充實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서 우리가 이거를 다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正確하게 가려내야 돼요. 이렇게 놓고 볼때에 唯一팀 構成을 위한 10個方案 合意 다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9項에 있는 共同委員會推進機構 어떻게 해오자 하는것도 다 討論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아홉개까지 우리가 하자고 한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제기되는건 이 10項에 따라서 「유일팀共同委員會에서 協議・決定하자」 이렇게 合意했으니까 다 이렇게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인가 이 자리에서 이 아홉개 其他問題 提起되는거 貴側이 얘기를 하는거 말하자면 附則, 뭐 附屬合意書 1,2,3,4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건다 이 밑에 내려가는 건 明白하니 共同委員會가서 協議・決定하자 했단 말이에요.

南(李學來) : 그거 合意事項履行保章裝置는 이미 그안에 들어있어요.

北(김세진) :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合意한 問題를 똑똑히 理解 하시고 우리대표들이 해야할 事業限界는 여기까지다. 唯一팀을 構成해서 아세아大會까지 參加하려면 많은 일이 있지만 우리대표들이 할일은 明白히 여기까지다.

그런데 우리가 할일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이렇게 複雜한 問題를 자꾸 提起하고 이거 안되는데 우리보고 유일팀을 안할려고 한다.

또 貴側이 얘기를 하는거 보면 뭐 1段階, 2段階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2段階 또 合意書 내놓고 3段階 또 뭘 내놓겠고 또 4段

階는 될 내놓겠는지는 몰라도 이런식으로 해서 유일팀을 안할려고하는건 貴側의 속심이 아닌가. 이게 들어났지 않는가 지금.

南(李學來) : 그것 뭐 똑같은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其他事項을 말씀하는데.

北(김세진) : 이거 이거 누구나 明白한거고 世上에, 이환한 세상에 그 누가 이거를 모를 사람이 있는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렇게 나와서 생트집을 쓰는가?

두번째 문제, 두번째 내 얘기를 하겠어요.

南(李學來) : 其他事項 아까 얘기하는데 그건 얘기 안돼요. 그 이전에 우리가 履行保障裝置 먼저 다루자고 했잖아요.

北(김세진) : 두번째 내 具體的으로 더 얘기를 하겠는데, 이자 이자 뭐 附屬, 附屬合意書.

南(張忠植) : 너무 오래 얘기하면 말이지요.

北(김세진) : 아니 理解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아요.

南(李學來) : 시간 節約을 합시다.

北(김세진) : 그래서 이제 答辯하지요. 내 이제 다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 뭐 用語解釋, 附則, 附則도 이제 3가지는 다 이렇게 됐기때문에 나머지 네개가 남아있다. 그러면 네개도 다 공동위원회가 할거라는거 우리 얘기했고 用語解釋, 열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用語解釋 問題도 다 共同委員會에서 할 소관이라는거 이미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아마 首席代表선생이 잘 理解하지 못해서 내 오늘 간단히 正確하게 다시 해 주겠는데 用語解釋 13個項이 다 共同委員會에서 할 겁니다.

具體的으로 이제 봅시다. 그 用語解釋 1項, 1項 어떻게 되어있는가

『제 1項, 나 目的 提案한다 함은 북경아세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 側이 雙方이 合意한 單一팀呼稱 中國語 표기를 採擇・使用하도록 共同으로 最善의 努力을 다한다는 것을 말한다』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여기서 追求하는 基本內容이 뭐냐. 말하자면 中國語 表記問題, 名稱表記문젠데 이걸 北京아세아大會組織委員會하고 關係問題거든요.

다시 말하면 對外的問題란 말이에요.

그러기때문에 對外的問題는 共同委員會 機能에 어느 대목에 속하는가. 이미 우리가 共同委員會 運營細則 討論하는데 여기 이제 「1 共同委員會」그안에 「가」여기 機能입니다. 그 機能안에 (2)에 『共同委員會는 베이징아세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와의 各種 連絡 등 對外機能을 遂行한다』 이렇게 明白히 밝혀져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對外的機能을 수행하는건 共同委員會에서 하게 되어있기때문에 共同委員會에서 하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 共同委員會에서 이 提起된 問題를 討論하자는 거지 提起된 問題를 일축시키는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共同委員會에서 하자는 거.

그 다음에 「用語解釋 2」 하나 또 봅시다. 2에 어떻게 되어있는가. 第4項「나」目的 『選拔戰은 合同訓練期間 마지막 段階에서 公開的으로 實施한다』함은 合同訓練이 終了된후에 自己側 관중과 상대側 참관단이 경기를 자유롭게 參觀하도록 이렇게 規定하면서 이 무슨 라디오 및 테레비 중계를 보장하는 등 그 다음에 이제 北南來往人員數를 몇명, 몇명 이렇게 규정해 놨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보게되면 뭔가 이거는 선발전때 取材報道問題 어떻게 하겠는가. 그 다음에 두번째는 來往하는 人員들 어

떻게 얼마큼하겠는가 이런 問題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디에 명백히 밝혀져 있는가 共同委員會機能에서.

이건 이제 共同委員會 構成・運營方案 「1 공동위원회, 가 機能」에서 여기 (1)에 그 안에 든 (가)에 이 안에 든 ⑥에 어떻게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가. 『合同訓練 및 선발전시 參觀團交換 및 기자단취재에 관한 사항은 共同委員會에서 審議・決定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南(李學來) : 그거 언제 資料예요?

北(김세진) : 貴側이 내놓은, 지금 내놓은 資料입니다. 貴側이 내놓은 지금 이 資料 이걸 보시요.

南(李學來) : 언제 오늘 낸 資料요? 오늘낸 資料나 어제낸 資料나 本質上 변함이 없습니다 項目上 變함이 없고, 아니 아니 우리가 會談해온 過程에서, 거듭 討議過程을 통해서 修正・補完…….

北(김세진) : 자기가 내놓은 항목조차, 學來先生 다 잊어먹고 지금 여기 나와서 會談을 한다고 하는데.

南(李學來) : 그런식으로 會談하면 곤란해요. 그건 우리가 서로 修正・補完하는 過程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6次會談때 우리가 내놓은 案을…….

北(김세진) : 學來先生, 自己가 내놓은 案마저 다 잊어먹고 지금 여기 나와 한단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생트집을 하지 마시고요 學來先生, 이렇게 생트집쓰지마시고 자기가 내놓은 案 우선 研究 좀 하시라구요.

南(任台淳) : 자, 이제 그만 發言합시다. 그거 뭘 생트집만 잡고 있어요.

北(김세진) : 이렇게 지금 貴側에서는 열세개 항들이 다 보면 共同委員會에서 할게 明白하지 않습니까 首席代表先生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런데 뭣 때문에 여기다 내놓고 자꾸 여기서 討論하자고 합니까? 우리는 共同委員會가서 이 問題를 討論하자고 하는겁니다.

우리가 貴側에서 1月 10일날 이런 問題를 내놓지 않았더라면 아까 우리 장선생도 얘기를 했지만 이미 基本合意事項들이 서명이다 해서 이젠 며칠 안 있으면 共同委員會 하게 될것이고 이런 問題를 다 합의 끝낼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月 10日서부터 이게 계속 會談들이 공회전 돼오고 이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치가 뭔가? 그 속심이 뭔가? 이게 틀렸다 이거예요. 이게 속심이 틀렸다.

南(任台淳) : 허허허 속심이 틀렸어?

北(김세진) : 段階論을 지금 내놓으면서 이거를 1段階로, 1段階 뭐 하자고 하는데 2段階에서 또 뭘 내놓으려고 하느냐 3段階는 또 뭘 내놓으려고 하느냐.

南(張忠植) : 저 김선생, 아니 興奮하지 마세요.

北(김세진) : 이게 唯一팀 하자는 意思인가? 이게 唯一팀하자는 성의인가 이게? 이렇게하고 우리부터 안할려고 한다. 이런말을 차마 어떻게 그런말을 할수 있는가? 良心이 간지럽지 않습니까?

南(任台淳) : 아니 내가 말씀 좀.....

南(李學來) : 그저 김선생.

北(김세진) : 정말 유일팀을 하실려면.....

南(張忠植) : 말씀 다하셨냐구요?

北(김세진) : 지금 아 다 했습니다. 이젠 유일팀을 할려는가 안할려는가 하는 問題는 지금 首席代表先生! 지금 유일팀을 할려느냐 안할려느냐 하

는 문제는 누가 빨리 이 基本合意書들에 署名을 하고.

南(張忠植) : 그리고 저 같은 말이라도 말이요 무슨 良心이 간지럽다 말이요…….

北(김세진) : 共同委員會를 나오도록 하겠는가? 여기에 意思를 表明하는가 안하는가에 따라서 유일팀을 할려느냐 안할려느냐 하는걸 가려보게 됩니다.

南(張忠植) : 여보세요. 意思表示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北(김세진) : 그래서 난 首席代表先生이 좀 지금 내용은 一切問題들을 다시 한번 再考하시고 유일팀을 하시자고 진심으로 하신다면 이렇게 나오셔야 된다는 걸 促求합니다.

南(張忠植) : 김세진대표님! 저기 우리가, 내용을 우리가 말이지요.

北(김형진) : 거 아니 그 말이야 이렇든 저렇든간에 세진代表말한게 맞지요 뭐.

北(장 옹) : 學來先生이 그저 모든 文件이라고 그랬는데, 1月 18日에 준 文件「1 共同委員會, 가 機能」 6項에, 1月 18日에 받은 文件 여기 있습니다.

南(李學來) : 아니 그게 장선생! 그게 어떻게 된건가 하며는…….

北(김세진) : 뭘 어떻게 된게, 거기서 내용은 案인데.

南(李學來) : 12月 22日날 우리가 내용은 案을 貴側에서 다 受容한다는 것을 前提로해서 내용은 案이에요.

北(장 옹) : 글썄 그러니까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南(張忠植) : 내말씀 좀 들어보세요 말을 할때요. 서로가 이렇게 표현에 있어서도 서로가 상스럽게 表現하면 會談하는데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서로 지금 意見이 안맞아 가지고 서로 기분이 좋지않
은데 거기 뭐 良心이 간지러우니, 내 솔직한 얘기가 貴側이 그러한 表
現 해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是非걸고 싶지는 않고 우리 內容
問題에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40年間 分斷된 狀態에서 여러가지 用語, 우리가 서로
表現한 말에 있어서도 어휘의 차이라는 것도 많이는 없지만 그런 차이
가 생겨요.

그러며는 우리가 貴側에서 정말 단일팀을 만드는데 성의를 낸다. 우리
側이 그것을 갖다가 방해하고 회피한다. 자꾸만 이렇게 責任을 우리한
테 전가하는데, 그러며는 지금 우리 南北間에 여러가지 會談가운데 잘
進行이 안된다 이거예요.

지난 7次會談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분위기라는게 대단히 重要的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난번에 故鄉訪問團, 우리 代表는 아니지만…….

北(김세진) : 아 首席代表선생! 그 얘기를 하시기전에 우리會談이 분위기
도 좋고 잘되던건데 왜 1月 10日에 이런걸 提起했느냐 하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다른 얘기 필요없어요. 故鄉訪問團 우리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우리야 會談이 아주 잘돼나가다가 1月 10日에 가서 지금 이런 迂餘
曲折을 겪고 유일팀이 지금 암담한 그런 狀態에 들어 갔는데 .

南(李學來) : 김선생! 얘기 좀 들어봐요. 首席께서 말씀을 하는데 왜
그렇게…….

北(김세진) : 가슴 아프잖아요 지금. 首席代表께서 보세요. 가슴아프지 않습니
까? 그 이거 체육인들로서는 정말…….

南(張忠植) : 남이 문제를提起한 動機라든가 背景이라든가 理由라든가 이런것을 說明하지 말라고 하고.

北(김세진) : 다른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왜 우리 體育會談이 이런 曲折을 겪는가 이거나 이야기 합시다.

南(曹英承) : 김세진대표! 왜 首席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그래요.

北(김세진) : 다른 얘기를 하지 맙시다. 우리 다른 얘기는 하지 말자구요. 그건 명백히 하자구요.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려 하지말고.

南(任台淳) : 아니 그 남보고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선, 다른얘기 하지 맙시다. 다른얘기 하지 맙시다.

南(張忠植) : 그래서…….

北(김형진) : 말씀하세요.

南(張忠植) :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10개항을 合意해서 결국은 공동위원회에 우리가 문제의 씨앗을 남겨주지 않아야 이것이 단일팀을 만드는 데 나는 수월한 길을 가는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며는 故鄉訪問團에서 雙方間에 合意해놓고 나중에 여러가지 걸림돌이 생겨가지고서 안됐다 이거예요. 그러며는 體育會談도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실질적으로 雙方間에 이것은 단일팀을 만들수 있는 그러한 誠意가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정도의 보장장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北側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北側에서 단일팀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정성과 정말 열의가 있다고 하며는, 貴側에서 말하는 附則에서 신경을 쓰는 것 같으면 아 그 附則이 아닌 어떤 형태든 간에 內容과 趣旨가 明文化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그것을 바꿔서 表

現한 거고.

用語解釋上의 문제라고 하는것을 우리가 本會談에서 이걸 얼렁뚱땅해서 넘어가게 되면 共同委員會가서 반드시 이것은 體育技術上의 問題에 있어서도 큰 論爭이 벌어집니다.

北(김세진) : 그런데 共同委員會를 왜 믿지 않습니까?

北(김형진) : 아, 張先生님! 아홉달 동안 한조항 한조항 대조한 合意書인데, 아 거기에 뭐 얼렁뚱땅한게 뭐있어요? 貴側에서 提起한 案 그대로했는데 그러면 貴側에서 얼렁뚱땅 提起했나요?

北(김세진) : 그러면 뭇때문에 共同委員會를 내오라고 했습니까?

南(張忠植) : 그 정도의 내용을 貴側에서는 이것을 자꾸만 會談遲延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는 本會談 代表團이 해야할 일입니다.

北(김세진) : 가만 張先生님, 張先生님! 아 그 정도야 여기다가 共同委員會에서 하자고 提起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南(任台淳) : 지금 貴側의 얘기를 들어보며는, 내가 얘기를 좀 하겠어요. 규정하셨는데 왜 자꾸 우기십니까 이렇게? 규정했는대로 하자는데, 우리 討論안하자는게 아닙니다. 共同委員會에 가서 討論합시다. 여기 규정한대로 貴側이 규정한대로.

北(김형진) : 맞아요. 세진代表가 얘기한거가 백번 맞죠 백번? 예. 아니 그런데 張先生님 보십시오.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事項은 貴側에서 提起한 10個項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貴側에서 제기한 案이 얼렁뚱땅 提起한 案이라는 걸, 그렇게 된다고 귀결되는데 그렇게 提起한 겁니까?

南(李學來) : 共同委員會에서 하자는 이야기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네

가지 事項을 本會談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하자는 거예요.

南(任台淳) :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南(張忠植) : 아, 그런데 아니지요.

北(김형진) : 아니, 왜 아니예요? 얼렁뚱땅 10個項合意書 이때까지 애써서
合意했는데 貴側에서 이제와서는 그걸 뭐 얼렁뚱땅 넘어갈수 없다. 그
렇게하면 안되지요.

南(張忠植) : 共同委員會에서, 이봐요 날짜가 없죠? 이거보세요 날짜가 없
죠, 그러며는.

北(장웅) : 그러니까 이거 뭐 빛좋은 개살구, 빈껍데기가 자꾸 나오는데.

南(任台淳) :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

南(張忠植) : 用語解釋上, 用語解釋하는데 뭐 그것이 뭐냐하며는…….

北(김형진) : 張先生님, 責任的으로 말씀, 그럼 좋아요. 그러면 예 좋아요.

貴側에서, 貴側에서 말하는 保障裝置, 合意書履行保障裝置, 그래 當局이
保障하는거고, 올림픽委員會가 保障, 保證하는거고, 아 이것이면 족한것이
지, 그래 貴側이 내놓은, 지난 時期 撤回는 했지만, 親善交換競技, 施設
踏查班交換, 用語解釋, 그래 이게 保障裝置입니까? 이게 保障裝置예요?

南(張忠植) : 아니, 그러면 用語解釋, 用語解釋을 안하고 간다고 생각을 할
때 共同委員會가서 말씀이지요?

北(김형진) : 아니, 文案을 整理, 文案이라는게 뭐예요 文案? 글뜻 맞추기,
예? 뜻 맞추기, 글자맞추긴데 그래 아니…….

南(張忠植) : 用語解釋을 못받아 들이겠다면 나는 오히려…….

北(김형진) : 아니 가만히 계세요. 이게 保障裝置예요? 말이 되지 않아요.
조선말을 아, 보장장치라는게 合意事項을 履行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

드는 것이죠? 그러니깐 合意書에 署名하고…….

南(張忠植): 過去에 南北間에 여러가지 회담경과라든가 이러한 실례를 볼 때 이러한 程度의 裝置가 필요하니까 單一팀 만드는데는 이것이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北(김형진): 아, 가만히 계십시오. 좀 계세요. 합의서에 서명하고 그 다음에 當局이 保證하고, 政府當局이 保證해요 그 執行을. 그 다음에 올림픽委員會가 保證한다는거를 合意한단 말예요.

아, 이것이면……, 署名을 해, 政府當局이 保證을 해, 올림픽委員會가 保證하는거를 合意해, 이것이면 되지, 아, 그래 貴側에서 말하는 用語解釋, 親善交換競技, 그 다음에 뭐 施設踏查班 交換 이게 保障裝置예요?

南(張忠植): 그거는 우리가 다 철회했어요.

北(김형진): 물론 없어졌지요. 없어졌지요.

南(任台淳): 行動을 보여 줄 수 있어야지, 행동을.

北(김형진): 왜 없어졌는가? 保障裝置가 아니고 會談議題와 맞지 않기 때문에 없어졌지요. 그야 明白하지요.

南(張忠植): 아니, 會談을 마치기 위해서…….

北(김형진): 그래, 이것이 保障裝置입니까? 制動裝置예요 制動裝置!

南(張忠植):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고.

北(김형진): 制動裝置, 明白히 하십시오.

南(任台淳): 자, 保障裝置를 制動, 제가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北(김세진): 會談을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합시다. 다 그렇게 하면 問題解決되겠는데 말이죠.

南(任台淳): 지금 貴側의 發言을 들어, 들어보며는 제 말씀, 제 얘기좀

들어 보세요.

北(김형진) : 아, 會談막바지에 와서, 수표를 할 단계에 와 있는데 큰 걸
쏟아놓고 이제 다시 討論하자.

南(任台淳) : 아,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 얘기를 듣고 말씀을 하시라
고.

北(김형진) : 자, 이거 内外記者들이 봅니다. 世上 사람들이 다 봐요.

南(張忠植) : 이거 봐요.

北(김형진) : 어느것 때문에 안되는가?

南(張忠植) : 貴側에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 조용하게 다 들었는데 우리
側에서 이야기할 때는 얘기하지 못하도록 해요?

南(任台淳) : 김단장님 發言權 안주시겠어요? 자, 나도 좀 얘기 합시다.
아, 이것 참 얘기를 못하겠어.

北(김형진) : 아, 首席代表先生께서 하시는데 자꾸 그래요.

南(任台淳) : 우리 뭐 오손도손 얘기를 하십시오.

北(김형진) : 뭐 오손도손해도 內容은 明白히 責任的으로.

南(任台淳) : 오손도손하게 하면서 內容을 明白하게 하면 돼요.

내가 불적에 지금 貴側의 말씀의 要旨는 合意事項 履行裝置가, 合意
事項 履行保障을 위한 裝置가 이것이 制動裝置다.

北(김형진) : 맞지요. 制動裝置죠.

南(任台淳) : 또 代表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
십니다. 그러며는 合意事項을 履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누가 해
줘야 될 것인가? 나는 代表團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서 해야되
는 가장 重要的 任務가 이 合意事項을 어떻게 하면 實踐에 옮길 수 있

도록 確固하게 保障을 해놓는 일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北(김세진) : 그래, 여기서 議論하자고 밝힌적 있어요?

南(任台淳) : 이것은 가만히 계세요! 남의 얘기를 들을 적에.

北(김세진) : 共同委員會가서 하자고, 共同委員會가서 하자고 밝혔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誤導된 말을 하는가, 이게 정확하게 해야지.

南(任台淳) : 이것은, 合意事項 履行保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雙方의 合意下에 保障이 可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를 내놓은데 對해서 貴側이 이것이 障礙를 造成한 것이다. 會談앞에 障礙를 造成한 것이다.

그렇다며는 合意事項을 履行하지 않는 것이 障礙를 造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會談을 결렬시키는 것이 障礙를 造成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論理밖에 안되는 겁니다.

北(김형진) : 무슨 論理가 그래?

南(任台淳) : 結局 貴側은 말입니다.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말하자면 實踐을 그만두겠다.

우리側이 그랬습니다. 今年初에 對話에 들어오면서부터 主張한 것이 작년도에는 말로써 이것을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이냐 하는 것은 討論을 했지만은 今年度에는 바로 9月달이 되며는 아시아競技大會가 北京에서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今年度부터는 이것은 行動과 實踐으로서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 우리 立場을 이렇게 明白하게 밝혔습니다.

그것의 첫째 段階가 뭐냐 하며는 合意事項을 철저히 履行保障하겠다고 하는 意志를 分明하게 드러내 보여야 된다. 정말 우리 俗談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合意事項에 署名하자는 데에는 아주 그 뭐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確固하게 保障하자 할적에는 그것을 全面 撤回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것을 全面 撤回하자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나 하며는 合意事項 履行保障에 대해서는 全面的으로 關心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컨대 지금 過去에 내뉘던 案中에서 親善交換競技를 지금 問題를 삼습니다마는 親善交換競技를, 그 小規模의 親善交換競技를 못할 程度의 狀況에서 果然 7~8百名 選手들이 往來하는 이 選手選拔戰이 果然 可能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貴側에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意見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百步를 讓步해서 이것을 그러면 留保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남은 것이 뭐예요? 事實上 用語解釋問題도 그렇고, 또 北京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에 通報해 주는 問題도 그렇고, 合意事項을 內容을 明白하게 해서 共同委員會에 넘겨주자 이겁니다. 그리고 또 對外的으로도 合意事項을 明白하게 알려주자, 이런 얘기에 不過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全面的으로 털어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뭐냐? 共同委員會에 대해서는 애매한 內容을 넘겨놔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김단장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내놓은 案을 9個月도 더 걸리며는 그러면 아시아競技大會까지 말하자면 本會談이 끝나지 않겠다 이

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論理를 그대로 適用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共同委員會에 이걸 넘겨놓고 나서 9個月 넘어버리면 아시아競技大會에 어떻게 單一팀으로 나갑니까?

지금 이 몇가지 事項만 가지고도 合意가 안되는 狀況이라 할 것 같으며는 共同委員會에 넘어가 가지고 이 한 두가지 問題가 아닌데…….

(雙方騷亂)

결국 이것은 제가 총체적으로 볼 때에 마음과 마음을 터 놓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貴側은 적어도 單一팀 構成에 정말 뜻이 있다고 그럴것 같으면 履行保障問題에 대해서 정말로 誠意를 보여야 됩니다.

北(김세진) : 그래, 그걸 성의로 보이라면 이제 이게 2段階라는데 3段階는 또 뭘 내놓겠소? 4段階 뭘 또 내놓구? 이렇게 해서 會談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거요? 똑똑히 말해야지 말이요.

北(김형진) : 가만히 계세요. 任先生께서 말씀했는데, 얘기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貴側의 속심이에요.

명백히 하건데, 10個項을 用語解釋이 合意안되면 合意할 수 없다. 다 合意해 놓은걸 用語解釋이라는 걸 붙여놓고 그것이 合意되지 않으면 10個項 自體도 合意할 수 없다. 그러면 1項부터 열個를 또하면 우리 10個項을 아홉달 했는데, 또다시 거슬러 하면…….

南(任台淳) : 우리의 속심을 아시겠어요?

北(김형진) : 아, 가만좀 계세요!

南(任台淳) : 우리의 속심을 아시겠어요?

北(김형진) : 아, 명백하지요.

南(任台淳) : 우리의 속셈이 뭘니까?

北(김형진) : 뭐인가? 附則이라는 것을 내놔서 會談에 障礙를 造成해서 唯一팀 構成을 遲延시키자는 거지요?

南(任台淳) : 우리의 속셈은 정말로 實踐에 옮기자는 겁니다. 말로만 어찌고 저찌고 하지 말고 行動으로 하자 이러한 얘기입니다.

北(김형진) :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허혁필 代表동무 좀 얘기하겠습니까.

北(허혁필) : 저 좀 한마디 합시다.

아까 張首席代表先生이 첫 發言하신 것도 듣고 또 任台淳代表 얘기하는 것도 듣고 이렇게 해 보니까, 貴側의 會談姿勢에 좀 問題가 있다 내 이런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履行保障裝置問題와 관련해서 오늘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선 내 앞으로 좀더 길게 얘기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또 얘기를 하겠습니까마는 貴側이 6次會談에서 履行保障裝置問題를 내놓은거는, 制限的인 內容을 얘기한 것은 覺書交換하는 그 問題 뿐이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지나가는 말로 그 案을 내놓기전 趣旨를 얘기할 때 한 얘기입니다.

南(李學來) : 아니, 첫 發言文에 들어 있어요.

北(허혁필) : 첫 發言文이지만 그건 다음 案을 내놓기 위한 趣旨로 얘기를 한거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그때 그쪽에서는 「用語定義다」이랬던게 그 다음 해를 바뀌어서는 「用語解釋이다」 이렇게 둔갑을 해가지고 완전히 큰 보따리를 내

놓았습니다. 한번도 討論된 적이 없었던 그런 問題를.

그래서 履行保障裝置問題에 대해서 그날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 團長同志와 張首席代表先生 사이에 얘기가 주고 받아진 것이 있는데, 履行保障裝置에 분명히 當局保障覺書를 말하는가, 그러니까 올림픽保障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럭하구 그 問題로 말하며는 이미 運營細則에도, 貴側이 내놓은 共同委員會運營細則속에서도 그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이걸 準備를 하면 되겠다』 이런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거저 약간 지나가는 말로 스쳤던 걸, 그 다음 한번도 提案한 적이 없는 그런 問題들을…….

南(李學來) : 첫 發言文에 내놓았는데…….

北(허혁필) : 첫 發言文에 提案으로 내놓은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雙方騷亂)

南(李學來) : 첫 發言文의 內容을 다시 한번 읽어 봐요. 첫 發言에 했다고 하지 않아요?

北(허혁필) : 좀 들으십시오. 첫 發言에 했던걸 내가 부인합니까?

南(李學來) : 그래 얘기를 해 봐요.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北(허혁필) : 그래서, 첫 發言文에서 스치는 얘기로 슬쩍 지나갔다가 거기서 案을 내놓은 거는 『總理覺書, 政府當局 保障覺書를 交換하는거다』 그러니까 張首席代表가 『올림픽 保證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實務接觸에 그걸 가지고 그래서 保障裝置를 討論하자는 것이지, 그런 비단보자기에 싸인 그런 큰 障礙物, 이게 내 처음

부터 이런 表現을 씁니다마는 그런 難關을 가지고 나올줄은 우리는 상 상밖이다 이거예요.

그래 났으면 그 問題를 가지고 지금까지 옥신각신 옥신각신하는데, 제 생각에는 履行保障裝置며는 10個項 合意書에 署名해서 世上에 公開를 하 면 그보다 더 큰 保障裝置가 어디에 있는가, 그겁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오늘 貴側 그 會談姿勢에서 문제시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共同委員會에서 協議·解決할 이 問題 들을 이 會談에서 다 끝까지 하자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問題입니다.

南(李學來) : 아, 그 얘기는 뭐 아까도 한 얘기고.

北(허혁필) : 아까도 했는데, 내 그래서 아까도 했는데 그 쪽에서 理解 를 못하기 때문에 이 問題를 내 더 얘기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眞實로 唯一팀을 構成하자면 10個項 合意事項에 署名하고 唯 一팀을, 共同委員會를 나오면 됩니다. 共同委員會를 그쪽에서는 거기 가면 뭐이 안될것처럼, 뭐이 불씨가 생길 것처럼 이러저러한 表現의 말씀을 하시는데 共同委員會에 가면 이 會談 우리 10名이 하기보다는 훨씬 더 잘 풀린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共同委員會는 우선 이 會談보다는 次元이 높은, 次元이 다른 그런 機構입니다. 權威있는 그런 機構라구요.

제가 이제 張首席代表先生도 거기 包舍될지…….

南(李學來) : 共同委員會에서 해야될 事項이 얼마나 많은지나 아십니까?

北(허혁필) : 많습디다. 글썬, 많아요. 우리가 그걸 否認하지 않아요.

南(李學來) : 그거 우리가 지금 이거 다 保障裝置 다 해도…….

北(김상부) : 아니, 李學來先生! 왜 자꾸 이렇게 따집니까?

北(허혁필) : 그래서 이 共同委員會 가면 지금 우리 여기 앞뒤 다섯명씩 이렇게 마주 앉아서 서로 지금 얼굴도 붉히고 言聲도 높이고, 이게 하자니까 지금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妥結이 돼서 共同委員會가 나오게 되면, 自動적으로 이제 15日 後면 나오게 됩니다 서명을 하면. 그건 이미 그렇게 合意됐거든요. 그 日程問題 구태여 어느날 共同委員會를 내온다, 이 말을 안해도 署名만 하면 自動적으로 15日 以內에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北(김형진) : 그때는 또 北과 南이 아니지요.

北(허혁필) : 예?

北(김형진) : 그때는 또 北과 南이 아니지요.

北(허혁필) : 아, 그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團長同志도 말씀하셨지만 그때에 가면 이게 하나의 共同委員會가 아닙니까, 하나의 共同委員會.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지금과는 좀, 말하자면 內容에서도 다르고 거기 가면 또 지금 우리 다섯명 뿐이 아니고 專門家도 있을게고 委員, 兩側 委員長들도 參加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오손도손 다 해결될 수 있다 이거요.

그런데 무엇때문에 貴側에서 이 共同委員會에 가면 안된다. 共同委員會에 가면 안되고 여기에 불씨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하자.

이것은 결국 共同委員會가 發足하는 것을 꺼리는, 그 말하자면 더 연결시켜 얘기를 하면 共同委員會 나오는걸 싫어하는 것은 共同委員會 나가서 차근차근 다 合意돼서 될것 같으니까 이걸 하기 싫어서 그러는게 아닌가.

南(李學來) : 共同委員會에서 될 수 있는 事項을 왜 여기서는 안된다고

그러지요?

北(허혁필) : 아, 여기서는 거기까지 한다는 것이 다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거 내놓는가? 거, 學來先生 말 좀 들으시라요. (雙方騷亂)

南(張忠植) : 나 한마디 할게 있어요.

北(김형진) : 가만 좀 있으라요.

北(허혁필) : 아니, 내 요거 좀 더하겠소.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貴側에서 附則이라는거 말하자면 그 껍데기는
그야말로 그게, 그쪽에서는 10個項을 빈 껍데기라고 그렇게 매도를 했
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附則이라는 그야말로 그 껍데기는 베끼고 속은
그대로 있는 이런거 했는데 그게 그것이 얼마나 不當한 짓가 하는 것
을 제가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貴側에서 이제 여기 「第 11回 北京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 및 아
시아올림픽 評議會에 보낼 書翰에 관한 合意書」 이래 가지고 편지를,
이래 書翰을 보내자고 한 그 條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다 省略을 하고 내가 제일 問題視된다 하고 생각하는 건데, 『불
가피한 事情으로 인하여 單一팀 構成・參加가 어렵게 될 境遇에 雙方
올림픽委員會는 OCA 會員資格으로 個別 參加하기로 合意하였음을 알려 드
립니다』

이게 唯一팀이 되자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이런걸 차마 이거 내
놓지 못한다. 이게 진짜로 하자는 立場이면 이런 편지를 그것도 우리끼
리 얘기도 아니고 國際機構에 이런, 우리 이렇게 北과 南이 했는데 이
렇게 합의했습니다. 이게 안되면 우리는 唯一팀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저
個別팀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唯一팀을 하겠다는 사람이면,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데는 그쪽에서 지금 不履行措置, 不履行時의 措置라고 그래서 6次때 내왔던 그걸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不履行時 措置라고 하게 되면 이게 하자는 사람들이면 不履行時에는 절대로 個別的으로 못간다. 이렇게 받는데 이게 오히려 옳은 것이지. 예?

南(任台淳): 아, 그게 바로 貴側의 생각이로구만. 貴側의 意圖를 알겠어요 이제, 알았어요.

北(허혁필): 여보시오. 그거는 우리가 組織委員會 成員입니까? 가만 내저, 마저 얘기를 하겠어요.

南(張忠植): 너무 혼자서 말씀 길게 하시면 말이지요.

北(허혁필): 별로 길게 얘기한것 같지 않은데.

南(任台淳): 貴側의 의도를 이제 알겠어요 이제.

北(허혁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서 이제 履行保障裝置요. 요 먼저번에 이제 그 張首席代表先生이 뭐 背水의 陣을 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결국 履行保障裝置다, 背水의 陣을 친다. 이게 말 뜻으로 따질 때에는 옆으로 빠지지 못하게 하고 뒤로 물러설 수 없게 한다 그런 뜻인데 말뜻은, 그런데 이 內容을 보면 이걸 保證裝置나 이 保障裝置가 아니고 制動裝置다.

아까 우리 代表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실지내용을 보면 制動裝置다. 또 뒤로 물러설 수 없는 退路를 遮斷하는 背水의 陣을 치는게 아니라 뒤로 도망갈 도피로를 미리 부설하자는 그런 作戰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南(張忠植): 내 생각을 얘기할테니 들어 보세요.

北(김형진) : 다 끝났어요.

北(허혁필) :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唯一팀 構成과 관련해서 이 10個項 討議初期부터 상당한 程度의 그야말로 아량도 보였고 讓步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張忠植先生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10個項을 그 貴重한 열매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誠意를 보였고 얼마나 우리 讓步를 했는가 하는 것은 張忠植先生도 일찌기 우리가 讓步를 했을 때 『貴側의 態度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誠意를 보였는가? 그걸 믿지 못해서 무엇때문에 마지막까지 이런 障礙를 撤去하지 않고 이 會談 展進을 가로 막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난 기간에도 唯一팀을 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그것이 조금 우리에게 不利하더라도 또 民族的 和解의 見地에서 조금 이제 부당하더라도 다 同意를 했고 앞으로도 다 同意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個別팀으로 가겠다. 따로 가겠다. 이런 問題에 대해서는 절대로 同意할 수 없다 이걸 우리의 確固한 立場입니다.

北(장웅) : 不履行保障裝置, 不履行保障裝置.

北(허혁필) : 不履行 그야말로 不履行保障裝置예요.

北(장웅) : 背水의 陣이 아니라 36計…….

北(허혁필) : 그래서 오늘도 내가 會談姿勢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거래가 이 唯一팀이 되기를 期待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마당까지 다와서 署名을 할 最終 마지막 段階에 와서 貴側이 이런 장애를 조성했기 때문에 『이게 안된다』하고 이렇게 되며는 이 會談에 期待를

걸고있는 온 거래가 얼마나 失望을 하겠는가.

난 그래서 貴側에서 이제라도 좀 姿勢를 바꿔서 대담하게 진지한 그런 회담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南(張忠植) : 내가 말씀드니까 貴側의 眞意를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個事項을 빨리 合意해서 共同委員會에 가더라도 이것은 單一팀을 만들지 않을 要素는 얼마든지 있다.

北(허혁필) : 그건 무슨 말이에요?

南(張忠植) : 내말 끝까지 들으시라요.

北(허혁필) : 무슨 말이에요?

北(김형진) : 아니, 張先生님 무슨…….

南(張忠植) :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問題를 내놓은 背景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南北間에 있어서 피차간에 우리가 해놓은 實例를 우리가 한번 回顧해 보며는 그 問題가 나오리라고 理解가 될겁니다. 왜? 79年度에 貴側에서 平壤國際卓球大會때 우리를 어떻게 대했죠?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北(김세진) : 제가 그걸 한번 얘기하겠어요.

南(張忠植) : 얘기 들어 보세요. 그러며는 다른 나라 代表들은 다 參席하도록 하면서, 單一팀 만들자고 하면서 우리 選手들을 안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이것이 民族을 사랑하는 貴側의 姿勢며 統一을 熱望하는 貴側의 處事였느냐 이말이요.

또 84年度에 貴側이 프라하에 가서 뭐냐며는 LA 보이코트, 참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우리보고 LA에 單一팀으로 나가지 말라 이것은 뭐냐하면 이번 회담에서도 貴側이 이렇게 表現한다고 하며는

이것 9月 22日날 날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안에 合同訓練도 해야하고 選手選拔도 해야되겠는데 共同訓練의 合意事項 빨리 끝내서 單一팀 만든다 해놓고 결국은 個別팀으로도 못나가게끔 만들고, 單一팀 만든다고하는 명분하에 결국은 單一팀도 못나가게 하자고 하는 그러한 속셈이 아니라고 한다면 用語上의 문제가 本會談에서 實質的으로 討議하자고 하는데 큰 문제도 아니예요.

北(김세진) : 그것은 用語問題도 아니죠 便紙를 보내자는 거지.

南(張忠植) : 그 다음에 日程을 遵守하자고 하는건데 왜냐하면 日程을 遵守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이 合同訓練이라든가 無期限 끝 수 없는 문제예요.

그 다음 選手選拔問題 이거 用語上의 解釋을 안해 놓고서 顯著的 均衡을 갖다가 깨지 않고 選手選拔 한다고 했을 때 共同委員會가서 實側은 이것은 반반이다, 6:4다, 7:3 이다 해서 이것이 실제 共同委員會가서 雙方 10名 代表間에 그것이 合意가 안된다 할 것같으면 이 單一팀 되겠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統一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民族이 念願하는 이말을 내세워서 單一팀을 만들자고 해놓고 결국 共同委員會가서 뭐냐면 물귀신 사람 잡아당기듯이 뭐냐며는 單一팀이 안됐으니까 결국은 너희들 單獨으로도 못나가겠다.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그러한 表現이 나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貴側에서 정말 單一팀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眞心이 있다고 하며는 『아, 그거 좋다. 당신들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못믿어 준다고 할것 같으면 用語解釋합시다. 그래서 共同委員會의 結점들을 적게 만들어 줘

시다. 거기다가 均衡을 깨지않도록 選拔한다고 하는거 用語解釋합니다.』 그 다음에 정 우리가 單一팀을 만들었으면 單一팀을 만들었다고 하는거 北京大會에 우리가 通報하고 정 불가능한 그런 입장이라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며는 40년 分斷間에서 우리가 努力을 다 하다가 안될 수 있었을 경우에 『너희는 못간다』해서 北京大會도 남의 잔치 결국 우리가 훼방놓아서 안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貴側에서 정말 單一팀을 만들 진심이 있다고 하며는 우리가 提案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을 철회하자는 것은 내가 볼 때 合意事項, 10個 合意事項은 허울 좋게 빨리 讓步해서, 北側에서 讓步해서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南側에서 反對해서 안됐다. 共同委員會가서 紛爭의 씨앗을 우리가 만일 넘겨준다고 했을 때 이거 單一팀 되겠습니까?

北(김세진) : 여기 이 會談場 지켜보는 기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唯一팀을 하자고 하면서 個別팀으로 갈 걸 前提로 하는 그런 便紙를 보내자는게 하자는 건가? 타당한 건가?

南(李學來) :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게 아니에요?

北(김세진) : 내 79年度 卓球會談이 10명중에 參加者가 제 한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會談에 參加했던 직접 參加者로서 내가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貴側에서는 그때 처음부터 既得權이라는 것을 들고나와서 그저 우리는 個別的으로 參加할 수 있다는 이 既得權을 認定하자 처음부터 그것만 強調하였습니다 유일팀을 하겠다는 회담에 나와서. 그래서 지금 그것이

나 그때 그래서 어디까지 가서, 못가서 '눈물을 머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이제 못은 것은 …….

南(任台淳) : 그때 그래서 貴側에서 잘했다는 거예요?

北(김세진) : 오고 안오고 하는 問題가 아니예요. 唯一팀을 안한 것이 누구 責任인가 지금보면 그때의 再演이다 그게.

南(任台淳) : 그런 잔피가 안통합니다 이제는.

北(김형진) : 가만 張先生, 이렇게 합시다. 이리 뭐 자꾸 공전을 거듭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合意한대로 文案整理합시다. 文案整理해서 아 이제 세 번씩 合意書案도 交替했는데 文案整理해야지.

그러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附則을 討論 안하면 文案整理 안하시겠습니까?

南(張忠植) : 아, 이걸 하면 문안정리하죠.

北(김형진) : 합의한대로 문안정리 합시다. 안하시겠습니까?

南(朴秀蒼) : 김단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北(김형진) : 장선생님! 수석대표 선생님!

南(張忠植) : 나는 貴側의 얘기하는 사람 얘기 다 들었는데 우리측 대표에 대해서는 얘기 안들으시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北(김형진) : 아, 얘기하십시오.

南(朴秀蒼) : 아니, 얘기드릴테니까.

北(김형진) : 하는데 한마디만 답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文案整理를 안하시겠습니까?

南(張忠植) : 이것 附則 …….

北(김형진) : 附則 討論해야 文案整理하겠습니까?

南(張忠植) : 附則討論하고 그거하고 같이합시다.

北(김형진) :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合意한 事項을 뒤집어 엮고, 文案整理 實務代表接觸에서 10個 方案 文案整理하자. 共同委員會 構成・運營方案 文案整理하자. 보장장치하자. 보장장치에서 當局의 保證覺書, 올림픽委員會 保障에 관한 확인, 아 이거면 됐지 뭐 또 자꾸 그렇게 그 난 정말

南(朴秀蒼) :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개미 쳇바퀴 돌듯 똑같은 이야기 反復하면 무슨 必要가 있습니까, 그게?

北(김형진) : 왜? 貴側에서 理解를 못하니까 그렇죠.

南(朴秀蒼) :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을 한번 해드릴게요.

北(김형진) : 새로운 말씀 가지고 나왔어요?

南(朴秀蒼) : 예, 새로운 것이예요. 지금 우리들의 이 討議를 綜合해보면 이런 것이예요. 北側에서는 우리가 내놓은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難關이다』 이겁니다. 難關, 그리고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問題들은 共同委員會에서 協議・解決할 問題이다』 要約을 하면 딱 그 두가지예요.

北(장웅) : 그 朴先生 여전히

南(朴秀蒼) : 그것은 틀림없지요? 더 이상 다른 말씀이 없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을

北(김형진) : 그때 資料 認定하라고, 말한 것?

南(朴秀蒼) : 아 그것을 풀어드릴게요. 「難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自體가 矛盾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당신네가 내놓은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는 우리 本會談에서 協議할 그런 事項이 아니고 이것은 共同委員會에 넘겨서 거기에서 協議

를 하도록 하자』 그렇게 딱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雙方間에 固執을 부리든지 또는 뭐 合意가 이루어지든지 양단간에 어떤 結末이 날 수 있었을텐데 「難關」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難關, 이건 難關이라고 하면 지금 本會談에서는 難關이 되는 것이 共同委員會로 넘겨진다고 해서 이것 難關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北(김형진) : 또 理解를 잘못했구만, 理解를 잘못했어.

北(허혁필) : 理解를 잘못했어.

南(朴秀蒼) : 難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아니, 더 들어보세요.

北(김형진) : 共同委員會에서 그건…….

南(朴秀蒼) : 하여튼 더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더 들어보세요!

北(김형진) : 그렇기 때문에 難關이다, 막바지에 와서.

北(김세진) : 理解를 잘못했어요. 共同委員會의 할일이, 本會談의 할 일이 따로 있는데.

南(朴秀蒼) : 아니 그러니까 더 들어보시라니까!

北(김형진) : 共同委員會에서 討議하자고 合意한 問題를…….

北(김세진) : 그 內容自體가 複雜한게 아니라 本會談에서 해야 할 事業 範圍가 있고 共同委員會가 할 範圍가 있다는걸 똑똑히 理解하시라 이거예요.

南(朴秀蒼) : 아, 이야기 좀 하면 들어보고 말씀을 하세요.

北(김형진) : 아니 理解 못하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죠.

南(朴秀蒼) : 답답하기는 똑같은 이야기 反復하면서.

北(김세진) : 그거 理解를 똑똑히 못하시고 하시니깐 답답해서 그런건데.

南(朴秀蒼) : 좋아, 그러면…….

北(김세진) :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理解를 못하쇼?

南(朴秀蒼) : 그러면 저쪽으로 넘어가면, 共同委員會로 넘어가면 難關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北(김세진) : 아, 討論돼요 거기에 가서야.

北(장웅) : 그렇죠.

北(허혁필) : 아니지, 아니 難關이라는게 그런 뜻에서 難關이라는게 아니죠.

南(朴秀蒼) : 허어, 이랬다 저랬다 말이 다르니 어떤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北(허혁필) : 理解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難關이라는게 會談을 하는데 障礙를 만들었다.

北(김형진) : 朴先生, 그거 잘못 理解했어요.

南(朴秀蒼) : 좋아요. 그러면 難關이 그런 意味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共同委員會에서 協議・解決할 問題가 아니고 이 本會談에서 解決해야 되는 理由가 어디에 있는가를 說明해 드릴게요.

北(장웅) : 實務接觸에 나와서는 저 朴先生하고 曹先生 共同委員會內에서 討論할 수도 있다 했어요.

南(朴秀蒼) : 어허,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北(허혁필) : 아, 그렇게 하니까. 아, 내가 말한거 團長先生이 다 얘기했는데.

南(朴秀蒼) : 아니, 그러니까 지금 7個項이죠? 우리가 내놓은 것이 7個項이죠? 7個項입니다. 거기에서 雙方 當局間에 뭐 保障覺書交換, 그것은 貴側도 내놓았으니까 그것은 問題가 없는 것입니다.

北(장웅) : 내가 무슨 소리 할려는지 알아, 朴先生이. (一同 웃음)

南(朴秀蒼) : 그러니까…….

北(장 웅) : 미리 말해, 내가 미리 말할게. 그러니까 附則 들어내면 된다고 이거야.

南(朴秀蒼) :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요! 共同委員會 構成・運營細則 거기 들어있는거죠? 그 다음에 效力發生日字 2月1日로 하자고 하는 것 그게 다 合意된겁니다.

北(허혁필) : 그럼.

南(朴秀蒼) : 예, 좋아요. 合意되었어요. 그러면 세가지 털어버리면 네가지 남지요?

우선 日程遵守問題, 日程遵守問題는 지금 우리 共同委員會 構成・運營細則에 「合同訓練이나 選拔戰의 日程에 관한 事項」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協議한다 이겁니다. 共同委員會에서 그 機能中에 안나와 있는게 아네요. 나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否認하는게 아니라니까.

北(허혁필) : 아니 그런데 다른데에서는 否認하지 않아요 그걸?

南(朴秀蒼) : 틀림없이 나와있지요, 分明히 나와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日程遵守 問題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細部的인 日程을 짜자는거예요.

北(장 웅) : 또 잘나가다 또 삐뚜러져 나가는구만.

南(朴秀蒼) : 허어 三千浦로 빠지는게 아닙니다.(一同웃음)

排球試合을 한다고 한다면 언제, 어디에서, 어느 時間에 하자 하는 그런 具體的인 日程을 거기서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北(김세진) : 朴先生! 그건 日程이고 그럼 그 外 것은 日程 아닌가?

南(李學來) : 어허, 김선생! 日程이야기 좀 들어봐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될 것 아네요.

南(朴秀蒼) : 아니 日程인데.

北(김세진) : 그것만 正確히 하자니. 이것도 日程이면 같이 그 이것좀 討論할 때 해야지 말야.

南(朴秀蒼) : 여기에서는 全般的인, 우리의 所謂 單一팀을 向한 全般的인 어느 輪廓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輪廓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어느날 불쑥 내놓은 것도 아네요. 지금 이것도 다 合意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北(김형진) : 어느게 合意됐어요?

南(朴秀蒼) : 아, 日程遵守問題가 合意 안될게 뭐 있어요? 자.

北(허혁필) : 아니, 뭘로 合意됐단 말어요?

南(朴秀蒼) : 아, 뭐가 合意되었느냐?

北(허혁필) : 예.

南(朴秀蒼) : 자, 『合意書가 採擇된 後에 15日 以內에 共同委員會를 發
足시킨다』고 그랬어요.

北(김형진) : 예, 合意됐어요.

北(허혁필) : 예, 그랬어요.

南(朴秀蒼) : 그래서 2月 1日을 基準으로 한다고 했을 때 2月 1日날 合
意書가 採擇이 된다는 것을 前提로 했을 때 2月 15日날 共同委員會가
構成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죠?

北(허혁필) : 2月 1日날? 2月 15日날?

南(朴秀蒼) : 2月 1日날 合意書가 採擇이 된다고 前提했을 때 2月 15日
날 共同委員會가 發足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北(허혁필) : 음, 2月 15日, 그럼요.

南(朴秀蒼) : 그것은 우리 이미 10個項에서 合意를 본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共同委員會가 發足이 된 後 1個月 以內에 合同 訓練에 들어간다』하는 것도 이미 合意가 된 事項이다 이것입니다.

北(김세진) : 다 合意가 됐지.

南(朴秀蒼) : 「合意」소리가 싫으면 우리가 意見一致가 됐다.

北(김형진) : 아, 우리는 「合意」 그거 아주 좋아요. 그 소리가 貴側에서 싫어하지.

北(김세진) : 아, 合意가 다 되었다.

南(朴秀蒼) : 6月 22日날 「엔트리」마감일이죠. 딱 그거야 定해진 것이고, 다만, 한가지 意見を 좀더 모아야 된다고 한다면 選拔戰을 우리는 지금 4月 20日에서 5月 30日 사이에 갖자고 그랬는데 그 問題는 나머지 이런 것도 그러면 우리가 내놓은 것이니까 이미 合意가 된건데 그 合意가, 合意書가 採擇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提示된 날짜들은 變更이 可能하다 이겁니다. 可能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北(허혁필) : 구태여 그런 問題를 그런데 뭣 때문에 날짜를 찍어서 誠意가 있는듯이 보이려고 그저 그런 式으로 내놓았는가 말이지.

北(김세진) : 아무런 意義가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 認定하면서 그걸 무엇 때문에 附則이라고 달고 그러는가?

南(朴秀蒼) : 아니지, 意味가 있는거죠. 그러니까 왜 그것을 이미 나와있는 것을 다시한번 提示를 하니가 그것이 無意味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北(김세진) : 예.

南(朴秀蒼) : 無意味한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게 意味가 있느냐? 아니면 왜 그게 意味가 있느냐 하는 것을…….

北(김세진) : 明白한건데 무엇 때문에 附則이고 뭐이고…….

南(任台淳) : 具體的인 內容으로 해가지고 確實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北(장웅) : 朴先生! 그러니까 그걸 꼭 빼버리고 다 合意를 하면 돼요.

北(김세진) : 꼭 빼버리면 自動的으로 되는거란 말이에요.

南(朴秀蒼) : 아니 여기에서 못할게 뭐가 있어요? 이미 다 되어있는 것인데?

北(김세진) : 글썄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하자라면서 署名날짜를 끄는가?

南(朴秀蒼) : 署名날짜를 뭐를 끌어요?

北(김세진) : 署名날짜 18日날 하게 되었으면 뭐를 벌써 열하루나 지나지 않았어요?

北(허혁필) : 署名은 왜 앓는가?

南(朴秀蒼) : 아니 뭐를 署名날짜를 지금 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署名날짜를 1月 18日날 南北韓이 이 자리에서 반드시 合意書가 採擇되어야 된다고 南北間에 合意라도 했습니까?

北(허혁필) : 아니 豫定이 안되었습니까?

南(朴秀蒼) : 豫定이 아니죠, 그게.

北(허혁필) : 그러니까 互相間에 豫定이…….

南(朴秀蒼) : 그 다음에 또, 아니 그 다음에 또, 아니 좀 제 말씀 좀 듣고 아니 全部 다 解明을 하겠다는데 왜 그래요?

北(김세진) : 共同委員會에 가도 그저 合意하자는게야.

南(朴秀蒼) : 아니 그러니까.

北(김세진) : 어려운 問題도 아니다 그런거다. 그러니까 共同委員會에 가서 하자.

南(朴秀蒼) : 合意事項 不履行時의 措置問題, 이것은 共同委員會에 가서 해야될 일이 아니죠? 아니지요?

北(김세진) : 그게 무슨…….

南(朴秀蒼) : 貴側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내놓았느냐 하면 議題 밖의 問題라고.

北(김형진) : 참 記者는 몇名 이거는 다 共同委員會에서 합시다. 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해요?

南(朴秀蒼) : 어째서? 共同委員會에서 이게 協議해야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問題 이것하고.

北(김형진) : 가만! 좀 조용하세요. 이렇게 합시다. 이거 뭐 아직 오늘 會談을 돌이켜보면 서로가 意見を 달리하고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제 朴秀蒼先生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程度 理解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貴側에서도 認定한 바와같이 貴側에서 내놓은 附則에 限한 項들은 共同委員會에 가서 討議해야할 性格의 問題이고 우리는 이 問題를 撤回하라는 뜻은 明白히 앞으로도 舉論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다.

貴則이 내놓은 案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십시오. 共同委員會에 가서 討論하게 되는 項들은 貴則의 案 그대로 가지고 가서 共同委員會에서 討論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會談이 最終 結束段階에 와서, 唯一팀의 囊生이 경각에 오른

이 時刻에 와서, 署名하게 된 이 時刻에 와서 共同委員會에서 討論하게 될 問題를 끌고 와서 『여기에서 討論해야 이미 合意된 合意書 文案整理도 하겠다』 이것은 사실상 會談의 空轉이 거듭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됩니다.

現實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두차례의 實務代表接觸과 今年度에 들어와서 우리가 本會談 두번하지 않습니까? 두번 하는데 왜 署名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까? 이것은 共同委員會에 가 討論할 問題, 이런 問題들을 여기에 끄집어 내서 討論하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雙方이 合意된 基本事項 文案整理를 하고 이걸 合意履行입니다. 合意事項履行입니다. 두 合意書を 그 다음에 覺書 保證을 採擇하고, 아 이렇게 해서 수표해서 세상에 公表하면 唯一팀 誕生을 宣布하게 되는 것이고 唯一팀의 밝은 展望을 열어놓게 되고, 그렇게 하면 合意된대로 15日內에 共同委員會가 나오게 되고, 共同委員會에서는 貴側에서 提起했던 共同委員會에서 討議해야 할 事項, 其他 수 많은 項들을 共同委員會에서 討論해서 그 다음에 共同訓練을 시작하고 選拔戰 競技를 마지막 段階에 가서 하고, 아 이렇게 하면 무시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이거 明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明白히 말씀드리건데 그저 貴側에서 本然의 姿勢에 돌아와서 이미 合意하신대로 우리와 合意하신대로 唯一팀 參加方案, 10個方案 文案整理를 하고 다음 共同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方案 合意書を 文案整理해서 採擇하고 그 다음에 雙方이 互相 交換된 當局의 保障覺書, 올림픽委員會의 保證을 採擇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 會談에서 貴側이 共同委員會에서 내놓은 이런 提案들을, 討議할 提案들을 共同委員會에서 提

議하도록 해달라는 것을 다시한번 정중히 提起합니다.

南(張忠植)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어요.

北(김형진) : 조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會談을 보면, 會談을 보면 사실상 貴側은 首席代表가 이미 5次 會談에서도 明白히 했고 그 以後에도 누누이 12月에는 合意가 이룩되고 1月에는 妥結되어서 署名을 해야 합니다 하는 것을 누누이 強調했습니다.

때문에 지난 會談들에서 우리는 이런 約束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問題들을 大幅 讓步했을 뿐만 아니라 또 6次 會談에서 合意한, 雙方이 合意한 事項대로 履行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雙方代表들이 무엇입니까? 唯一팀을 構成해서 그 唯一팀을 構成한 合意書를 採擇해 세상에 公表하고 保證覺書를 다 달아서 發表하고 이렇게 된 다음에 共同委員會에 넘기면 共同委員會가 그걸 討論해서 唯一팀을 成事시켜서 出戰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明白히 말하건데 다음 會談에서, 우리側의 主張을, 우리側의 案을 오늘 좀 理解하신 것 같은데 돌아가셔서 깊이 研究하시고 좋은 우리側의 案에 肯定的인 期待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會談이만 합시다.

南(張忠植) : 예, 내가 말씀드리겠어요. 10個 合意事項은 單一팀을 만들기 위한 10個 事項입니다. 그런데 그 10個 事項이 誠實하게 履行이 됨으로 因해서 單一팀이 構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우리가 지금 附則 7個條項 가운데 거기에서 세가지 事項은 貴側에서도 다 그것은 問題視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意見의 差異를 보인 것은 네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共同委員會가 잘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單一팀 構成의 成敗가 左右되는 것이고 共同委員會를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本 會談에서 적어도 共同委員會에서 問題가 될만한 씨앗은 여기에서 빼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用語上의 解釋을 雙方間에 明白히 해서 共同委員會에서 紛爭이 안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겠고 두번째는 이 日程問題가 말씀이죠 대단히 重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9月 20日이라고 하는 時限的인 制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討議해서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單一팀을 만든다고 하는 것, 또 하나 만약에 單一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우리들의 態度를 北京側이나 OCA에다가 이것은 分明히 밝혀두어야 되요.

이것 밝히지 않게 되면 우린 이것은 南北間의 問題 뿐만 아니라 이것은 對外性이 있는 問題가 되어와서 그걸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研究를 해서 가지고 다음에 한번 다시 만나서 討論해 봅시다.

뭐 우리側의 立場이 정말 單一팀을 만들기 위한 眞正한 마음에서 이러한 共同委員會에서 問題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眞正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會談은

北(김형진) : 예, 다음 會談날짜 貴側에서 定하십시요.

南(張忠植) : 2月 7日날 어떻습니까?

北(김형진) : 2月 7日요?

南(張忠植) : 예.

北(김형진) : 2月7日이 무슨 曜日입니까?

南(張忠植) : 2月7日이 水曜日입니다.

南(任台淳) : 水曜日입니다.

北(김형진) : 뭐 자꾸 뭐 그 立場을 明白히 하시며 뭐 일없는데 文案整理를 하고, 合意事項대로 다음 會談에서 그렇게 하셔야 되요. 2月7日 뭐 자꾸 앞당긴다고 해서, 뭐 그저 앞당긴다고 해서 內容이 되겠나요? 立場을 明白히 가지고 나오셔야 되겠는데?

南(張忠植) : 우리 立場을 좀 잘 研究하시면 됩니다.

南(任台淳) : 保障裝置만 되면 바로 文案整理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北(김형진) : 우리의 立場이 明白합니다. 保障裝置가 아네요, 貴側에서 提起하는거.

南(張忠植) : 어떻습니까 2月7日날?

北(김형진) : 2月7日? 2月7日이 너무 이르지 않나요?

南(張忠植) : 너무 일러요?

南(任台淳) : 아니 이제 單一팀 하려면 날짜가 없는데요 뭐.

南(張忠植) : 날짜가 없거든요?

北(김형진) : 아, 거 오늘 貴側에서는 前에와는 달리 상당히 그 서두르는 感이 있는데.

南(李學來) : 아 이제 날짜가 있는데.

北(김형진) : 예, 좋습니다. 그거 2月7日로 합시다. 하는데 다시 明白히 하실 것은, 明白히 하실 것은 貴側이 提起한 附則 지금까지 뭐 야금야금 끌어가는데, 끌어가는데 그저 깨끗이, 깨끗이 터십시오 깨끗이.

南(張忠植) : 會談을 單一팀을 만들려니까.

北(김형진) : 글썽 單一팀을 만들려니까 빨리.

南(張忠植) : 常識적인 提案이지마는 우리가 會談을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가 그것을 讓步한 것이예요.

北(김형진) : 張先生님! 오늘 約束합니다. 이거 오늘 아이들하고 한 約束도 또 못지키고 올라가는데 이거 다음엔 큼직한 「마직펜」가지고 가서 수표할 準備하고 나오시다 예?

南(張忠植) : 우리 會談이 말이죠.

北(김형진) : 아니 約束합니다, 나하고.

南(張忠植) : 79年度와 같은 그러한 不幸한 事態가 안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北(김형진) : 張先生님!

南(張忠植) : 예.

北(김형진) : 그러니까 그저 아, 그것 뭐 首席代表끼리 큼직한 約束합니다. 뭐 아 다음 會談 나오실 때에는 우리 案을 잘 들으시고 그저 다른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다시 아마 한 열댓번 들었지만 다시 明白히 합니다. 二個 合意書, 基本合意書 그 다음에 共同委員會 構成方案에 관한 合意書 文案整理를 쪽, 이젠 다 되었어요 그저. 이 別途 合意書야 우리가 雙方이 세번씩 原案을 交替하고 對比表를 다섯번 交替하고 그러니까 이젠 무르익고 이젠 貴側에서 말한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 뭐 『어려운 것 없다. 이젠 다 되었다』 왜 어려운 것 없습니다. 貴側의 案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저…….

南(張忠植) : 單一팀을 만들기 위한 眞正한 誠意를 가지셨다면 用語解釋

雙方間에 우리가 하고 다음에 우리가 OCA 하고 이 北京大會에 우리 妥
結해서 合意書翰 보내고 말이죠.

北(김형진) : 그래서.

南(朴秀蒼) : 아니 다음 날짜 定해 놓고 會談을 다시 할 作定입니까?

北(김형진) :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張先生님!

南(朴秀蒼) : 그 다음에 日程遵守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 뭐 文案作成
다 만들어 놓았죠.

北(김형진) : 거 그저 體育人답게 털 바에는 쪽 털어야지 여기에 와서는,
그 사실은 아까 制動裝置라고 말한게 맞아요. 그 制動裝置를 풀으셔야
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南(任台淳) : 制動裝置는 거기에요. 한 발자욱도 물러설 수 없다고 하는
79年과 같은 그런…….

北(김형진) : 이 點은 明白히 하겠는데 讓步안하고서 提起한 問題는 없어
요. 貴側에서 왜 合意書 다 되었지 다른 讓步하라고 提起한 問題도
없고 또 우리도 讓步할 것 없어요. 明白히 합시다. 다음 會談에 만납
시다. 이거 아이들 約束 또 못지키는데 張先生 이것 다음에 잘 생각하
고 나오셔야 되겠어요.

南(張忠植) : 자, 수고하셨습니다.

北(김세진) :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했어요 任先生!

南(任台淳) : 수고하셨습니다.

〈雙方 代表團 人事交換後 退場〉

〈附 錄〉

代 表 團 記 者 會 見

〈우리側 代表團 記者會見〉

- * 日時 : 1990. 1. 29 (月) 12:45 ~ 13:19
- * 場所 : 板門店 우리側 地域 「平和의 집」
- * 發表 및 答辯 : 張忠植 首席代表

1. 記者會見文

정각 10時에 시작해서 12時 15분에 마칩니다.

지난 會談에 비해서 오늘 會談은 별로 進展된 것이 없고 雙方間 主張을 거듭하다 2時間 15分만에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만 오늘 다음 會談 2月 7日날짜로 결정한 것은 共同委員會가 2月 15日날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우리는 名單을 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共同委員會가 날을 잡은 2月 15日을 基準해서 일주일전에 會談을 가져야 되겠다.

北側代表는 왜 날짜를 빨리 잡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좀 늦게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만 실제 北京아시아 競技大會는 9月 22日 이라고 하는 이미 정해진 날짜가 있기 때문에 역산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 최소한도 저희가 처음 예비 엔트리를 6월 22일까지는 우리가 單一팀이 構成돼서 選手名單을 밝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合同訓練도 3月 15日 이전에 시작해서 4月 15日이내로 合同訓練을 끝내서 최소한도 4月 22日부터 5月 30日까지는 選手選拔을 마쳐야 될 그러한 시간이 긴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北韓側에서는 10個事項에 대해서 合意를 하고 다음 우리들이 提

案했던 10개사항 이행보장 장치에 대해서는 이것을 공동위원회에 넘기자 이렇게 主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처음에는 지난 4次, 5次 實務接觸을 통해서 저희들이 親善交換競技問題라든가 또는 자기측 運送手段問題라든가 또는 施設事前踏査問題라든가 이런것은 저희가 7次會談때 實務接觸에서 提案했던 問題는 우리가 그것을 讓步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7個項 附則가운데서 意見을 달리하는 것은 네가지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 네가지 가운데서도 用語解釋上的 問題라고 보는것은 공동위원회에서 雙方間에 紛爭이 될 그러한 소지가 다분히 있기때문에 單一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다.

그러한 前提條件하에서는 雙方間 10個事項에 用語解釋上的 問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그 會談가운데서 北側의 意圖를 알은것은 그 公開選拔戰에 있어서 北側의 態度는 이렇게까지 擴大 解釋할줄은 몰랐다. 즉 公開選拔戰이라고 하는것은 우리들은 일정한 參觀人團이 가야 되겠고 또한 新聞, TV 등 報道機關이라든가 이 방송단들이 자유스럽게 南北을 往來하면서 取材活動을하도록 保障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문제라든가 또는 選手選拔戰에 있어서 현저하게 均衡을 깨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條項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用語上的 解釋問題를 明確하게 하지않고 共同委員會를 開催했을때 현저하게 均衡을 깨지않는다. 이것은 北側의 해석이 만약 이것은 5대1이다, 5대5다 하는 이러한 主張을 한다고 하게 되면 選手選拔에 있어서 큰 問題가 야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用語上의 解釋도 本會談에서 合意를 해놓고 共同委員會에 우리가 提起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놓은 것입니다만 실제 8次會談까지의 北側의 態度를 본다고 하면 政治的으로 10個事項을 합의했다.

이렇게 單一팀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자기들이 南側에 많은 讓步를 해서 마치 民族統一의 課業을 앞당기는데 앞장섰다 하는 이러한 政治的인 宣傳을 目的으로 해놓고 실제 共同委員會가서 지지부진하게 회의를 지연시켰을 때 우리 選手團의 訓練問題에 있어서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도록 하는 저의가 있지 않겠느냐.

두번째는 오늘 北側의 허혁필대표가 말한대로 「個別팀으로 가도록 해서 안되겠다」하는것이 北側의 노골적인 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9年度 평양 국제탁구선수권대회에서도 單一팀을 만들자」그래 놓고서는 우리 選手들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單一팀을 만드는데는 결국은 北側이 깨놓고 우리들에게 비자를 주지않아서 우리 어린 選手들이 로잔에서 일주일 동안 비자를 기다렸습시다만 끝내 무산되었습니다.

오늘 北側의 장웅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면 「單一팀이 構成안됐으니까 우리팀에 비자를 주지 않았다」이렇게 변명을 하고 나온것입니다.

이런것을 보더라도 北側은 결국은 單一팀을 만들지 못했을때 그 責任이 우리側에 있다. 責任을 전가해놓고 그다음에 單一팀이 안됐을때 北京大會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팀을 못가게 할 뿐만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자기들이 北京大會에 가서 個別팀으로 競爭이 붙었을때에 오는 여러가지 不利得을 보지 않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北側이 單一팀을 만들 진정한 意思가 있다고 하면 用語上의 解

釋問題라든가 또는 不履行時에 있어서의 措置問題라든가 또는 일자를, 일정을 遵守하겠다고 하는 問題를 충분히 받아들일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회피하는것을 볼때에 다분히 이것은 單一팀을 만든다고 하는 하나의 허울좋은 名分을 내세워 놓고 실제로 南北韓 個別 팀으로 參加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裝置를 하자고 하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혹시 제가 말씀못드린것이 있으면 다른 代表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그 記者會見때도 보며는 자기들은 2月2日날도 좋고 몇일날도 좋고, 앞당겼으면 좋다고 9次會談을 그렇게 얘기 했는데 실제 會談에서는 2月7日날 어떠냐고 제가 提案했더니 아, 왜 그렇게 빨리 땡기냐고, 날짜를 뒤로 땡기자 이것은 共同委員會가 15日날 열게끔 되어있는 日字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2 . 質疑 · 應答

質問 : 東亞日報 新聞記者입니다. 오늘 會談에서 보면 共同委員會에서 다룰 事項을 本會談에서 다루자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가 사실은 틀린 얘기는 아니예요. 그거 우리가 미리 合意한 自體가 作戰上的 「미스」(miss) 내지는 우리側の 잘못으로 보는데요.

答辯 (李學來) : 北側에서는 10 個項을 合意를 다 해놓고 나중에 후과 같은 附則을 우리가 내 놔다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지난번 6次會談때 우리가 10 個項을 내놓을때에 그때 附則에 관계되는 事項을 前提條件으로 提示를 했어요. 그거를 다 저쪽에서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첫 發言文에 明文化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發言을 할때 그 애
기를 제가 提示를 했습니다.

지난번 6次會談때 10個項과 더불어 그 10個項을 合意하려면 적어도
이러 이러한 것은 前提條件으로 다루어 져야 한다고 하는 우리의 첫
發言文이 있고, 그래서 그걸 제가 가지고 가서 읽어줍니다.

質問：基本 10個項이 合意書初案에 內容이 들어가 있습니까?

答辯(曹英承)：北側하고 우리하고 基本的인 認識의 混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履行保障裝置를 언제 내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履行保障裝置의 內容이 뭐여야 하느냐 하는 이 두가지 問題입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 때문에 지금 問題가 解決안되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아무 問題
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짚어두어야 할것은 履行保障裝置라고
하는 것은 雙方 會談에 있어서 會談의 基本的事項 合意 말미에가서 나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내 놓았느냐 하면 6次會談때 履行保障裝置에 대
해서 言急을 했습니다.

다음에 나올때는 履行保障裝置에 대해서 相互協議하자. 이렇게 해서 그
쪽에서 좋다 그러고 우리는 언제 內容을 내 냈느냐 하면 그다음 바로
實務代表接觸때 이어서 바로 상세한 履行保障裝置의 內容을 내냈던 겁니
다 내놓았는데 그 사람들은 내용장치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것만가
지고 甲論乙駁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實務代表接觸때 자기들이 내놓은 內容이 뭐냐하면 두가
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당시 일곱가지였는데 자기들은 두가지였습니다. 그

일곱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거고 그쪽 두가지는 올림픽위원회 保證覺書
하고 當局者 保證覺書, 이 두가지를 내놓았습니다.

올림픽委員會 保證覺書란 것은 우리가 지금 올림픽委員會 委任을 받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必要없는 겁니다. 그리고 當局者 保證覺書 라는
것은 우리도 내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두가지 사항중에 하나에 속
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뭐냐하면 네가지가 남아 있
는 겁니다.

그러면 履行保障裝置 內容을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어떤 차이, 內容
에 대한 認識差異가 뭐냐하면 우리는 履行保障裝置라고 할 때 그 履行
保障裝置라 하는것은 基本的 合意事項을 移行하는데 效率的으로 하기위한
裝置와 基本的 合意事項을 지키지 않았을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裝置,
이 두가지를 다 包含해서 履行保障裝置라고 하는 겁니다 하는건데 이사
람들은 그런 論理的으로 그런 근거없이 막연하게 履行保障裝置는 當局者
가 保證하면 끝난다 하는 것으로 계속 밀고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根
本的으로 다른 겁니다.

履行保障裝置중에서 基本的 合意事項을 履行의 效率性을 確保하기 위한
裝置가 바로 用語解釋, 그리고 日程遵守 이 두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에 基本的 合意 事項을 履行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問
題는 우리가 거기에대한 보장장치로써 個別 參加를 사전에 우리 保障하
자, 그것을 문서로 해 놓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會談을 안했을 때는 아마 저
쪽에서 根本的으로 單一팀까지 가는것을 豫想하지 않았다 하는것을 반증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것이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質問：가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즉 만약에 우리가 저들이 提示한 70 個項이 合意 안된다는 것이 2月7日날 밝혀진다는가 말이죠 만일 그러할 경우에 會談이 어떠한 경우에 이르든지 空轉되는 경우는 우리가 바로 不利 益은 한 세가지만 더 뽑으신다면 어떤것이 있습니까?

答辯(曹英承)：그 部分은 누구든 다 對答할수 있겠는데 共同委員會가서 거기에서 지연돼서 만일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겪는 손실이 뭐냐, 이것을 지금 따져서는 안되지요.

共同委員會 가기전에 事前에 導出해서 問題를 解決할건 解決한다 하는 자세에서 봐야지 일단 共同委員會에 가다 그때 討議하다가 그 問題에 봉착해서 共同委員會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問題를 지금 생각해서는 안될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質問：首席代表님께 여쭙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어느 한쪽이 讓步하지 않으면 決裂될 것 같은데요.

北側에서는 자기들이 讓步할 것도 없고 讓步를 하지 않겠다는 理由를 들어 가지고 결렬을 거의 말이죠 남쪽에서 讓步를 하지 않으면 決裂될 것 이라고 宣言했습니다 조금전 記者會見에서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가지고 있는 前提條件이라는게 어느정도 伸縮性이있 는지요?

答辯：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양보라고 얘기하면 語弊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10개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交換競技問題라든가 施設事前踏査問題, 輸送手段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양보했습니다만, 이 회담이 다른 회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볼수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北側이 單一팀만 이것을 만들겠다 단일팀을 왜 만드느냐 민족 하나의 통일과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한다. 그렇다고 하면 고향방문

단문제라든가 이것도 이것과 관련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故郷訪問團에서 合意事項 다해놓고 나중에 혁명가극, 「피바다」니 「꽃파는 처녀」니 하는 이러한 문제를 내가지고 결국 회담을 깬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10개사항에 대해서 合意를 해 놓고 北側이 많은 양보에 의해서 통일사업을 추진하는 主體가 北側이라고하는 이러한 선전적인 立場으로 다가 南北單一팀을 끌고 나갈것이 아니겠느냐.

상당히 지금 選手들은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것이나 選手를 訓練하고 있는 監督·코치는 상당히 不安한 狀態에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수의 選手가 못가게 될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일정문제라든가 이런것을 우리가 計劃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北側이 79年度에 평양 卓球大會라든가 또는 84年度에 프라하에서 11個社會主義 國家가 參加하는 소위 LA보이콧트 모임에 北側이 가서 LA에 參加 안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그 이튿날 25 日날 板問店에 와서 우리보고 너희 個別팀으로 가지말라, 약속해라 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過去 行爲를 볼때에 과연 이 사람들이 단일팀을 만들려고 하겠느냐. 이것은 우리의 戰略을 弱化시키고 우리 訓練에 差質을 빚도록 하고 그 다음에 板問店에 나와서 이 單一팀 만드는데 대한 자기들이 앞장서 讓步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는 共同委員會가서는 많은 南北間에 論爭이 될 內容이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8次會談가운데 公開 概念에 대해서 벌써 그들은 이렇게 擴大解釋할줄은 몰랐다 이겁니다. 그건 뭘 뜻하는가 하면 아마 選手監督

정도만 往來시킬수 있는 그러한 立場으로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것도 이 사람들이 公開안하겠다고 했습니다. 公開選拔戰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와서 뭐냐하면 우리가 單一팀을 만드는데 있어서, 南北間에 있어서 體育交流가 되지않는 그러한 風土 부지기 속에서 과연 南北單一팀이 만들어 질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만약에 平壤側에서 500 ~ 600 名의 選手들을 여기에 데리고 와서 서울이고 釜山이고 우리 施設가운데 演習을 우리하고 같이할 수 있는 그러한 立場이 되겠는가 이것도 우리가 考慮해야할 事項입니다.

質問 : 말씀하신 內容을 알겠는데요. 그러니깐 北側의 案에 대해서 南韓에 있는 北側의 要求條件이라 할까 그게 우리로서는 讓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나 이겁니까?

答辯 (任台淳) : 제가 조금 補充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首席代表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생각은, 이 會談에 임하는 基本的인 立場을 말씀드리면 두가지인데 첫째는, 個別팀으로 나가느냐 單一팀으로 나가느냐. 어떤 경우에 더 전력을 優勢할 수 있겠느냐 이런 問題를 떠나서 單一팀이 정말 성사만 될 수 있다면은 성사시켜 나가겠다 하는것이 첫째 우리의 생각이고 두번째는 그러자니까 결국은 體育交流가 수반되지 않고 이게 성사가 不可能하다 이러한 立場입니다.

그러한 立場에서 우리가 會談을 推進해왔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아까 저쪽 記者先生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0 個項에 意見一致를 보고 單一팀 共同推進機構 構成 運營方案에 대해서도 저쪽에서 훑어 보지도 제대로 안은채 同意를 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意見一致가 됐습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狀況이 이루어지던 會談때 우리가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問題를 合意를 봐가지고 말하자면 이 세가지 틀이 하나의 合意書의 골격을 이룰것이다.

그러면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問題에 意見一致를 봐가지고 이 세 덩어리를 가지고 문안정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해서 共同委員會를 發足시키자 하는것이 우리의 立場입니다.

그런데 지금 合意事項 履行保障裝置問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融通性이 있느냐 이런 質問이신데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親善交換競技問題 등등을 提示했다가 北側이 가장 크게 반발을 보였던 部分에 대해서 비록 우리가 그것이 必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것을 털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北側에다가 얘기를하고 있는 內容은 이 履行保障이라고 하는 것은 實際 行動이 뒤따를 수 있다고 서로가 믿도록 하는 것이 重要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附則이라는 形態를 우리가 족 하자고 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文案整理를 하면서 公開選拔戰이란 것은 이러한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서로 말하자면, 서로의 뜻을 確認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로서는 어떤 方法으로든지 明文化하는 그것을 交換覺書를, 速記錄을 交換하는 어떤 方法으로든지 서로 뜻이 分明히 公開選拔戰을 정말로 實施하겠노라 하는것을 確認하자 이러한 얘깁니다.

지금 用語解釋問題가 共同委員會에서 論議될 問題가 아니냐 하는 것을 北側은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물론 細部的인 用語解釋이 共同委員會에서 論議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基本的으로 雙方間에 意見이 대치돼있는 部分을 그대로

남겨놓고 넘긴다는 것은 會談代表로서 할일이 아니다 하는 立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여기에 대해서 서로의 뜻을 確認하고 넘어가야 하겠다 하는게 우리의 立場인 겁니다.

그리고 用語解釋問題는 그런 정도가 우리의 立場인 거고 다음에 이제 日程遵守問題입니다만 日程遵守 問題는 아까 朴代表가 會談場에서 說明도 했습니다만 實際 날짜들이 大部分 合意書에 事實上 合意되어 있는 部分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共同委員會를 언제 開催한다든가 또 合同訓練을 언제 한다든가 또 「엔트리」마감일까지 이제 일은 맞춰야 되겠다. 單一팀과 關聯된일을 맞춰야 되겠다든가 그런데 중간에 選手選拔戰을 合同訓練 마지막 段階에서 한다 그러면 合同訓練만 하고 있다가 選手選拔戰이 언제까지 뒤로 미루어 질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中間날짜를 대개 어디에다 정해 놓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5次會談때도 그 일정에 대해서 基本的으로 北側에 다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日程問題에 대해서도 꼭 그날짜가 아니면 안되겠다고 하는 立場은 아니다 하고 實務接觸에서도 이미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이 날짜에 대해서도 우리는 融通性을 가지고 相互協議해서 決定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날짜를 미리 정해 놓는 必要는 있겠다.

이걸 共同委員會에다가 넘겨 놓고 언제 合同訓練段階에서 언제 選手選拔해도 좋다고 마냥 미루어 둘수만 없는 것이 우리의 立場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미리 정해 놓고서 共同委員會로 넘어가자 하는 立場입니다.

그리고 이제 北京아시아 競技大會에 편지를 보내는 問題라든가 이런

部分에 대해서 北側은 편지를 보낼려면, 單一팀으로 參加할것이며 個別팀으로는 절대 參加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하는것이 좋으면 좋았지, 왜 個別팀으로 參加할수도 있기로 合意했느냐 한다고 하는것을 편지를 보내겠다고 하느냐 하는 北側의 論理的으로 봐서는 열성을 보이는것처럼 보이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立場에서는 그러한 內容들을 이제 뭐 숨길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單一팀을 우리가 構成하려고 最善의 努力을 다하되 어쩔수 없는 경우도 우리가 상정을 해야될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北韓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 立場이라는 것을 말씀을 안드릴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누히 말씀을 首席代表께서 말씀을 하셨드시 過去의 經驗이 그것을 立證하고 있기때문에 그래서 이제 北側도 정말로 單一팀을 하겠다는 생각일것 같으면 뭐 그것이 두려울 理由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合意事項 履行保障을 方法의 하나로서도 이것을 서로 짚고 넘어가는게 좋게다고 하는것이 現在까지 우리의 立場입니다.

質問 : 말씀하신 가운데 個別參加保障등, 그러니까 지금 北側에서 나머지 가지고 확대 발표를 한다든가 用語解釋이나 日程遵守보다는 오히려 個別參加 條項의, 개별로 나가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어 北側이 아마 제일 큰 반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는 보는데 그렇다면 이런 論理도 나올 수 있겠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韓國의 國力이라든가 아시아지역의 스포츠위치로 봐가지고 개별참가조항을 거기다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남북체육회담이 깨질거면 우리는 개별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굵이 그걸 갖다가 합의서에다가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북측의 어떤 걸림들에 어떤 구실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

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答辯(任台淳) : 記者 先生님, 아주 그 정확한 말씀인데 사실은 그것을 規定한다고 해서 우리가 個別팀으로 나가고 규정안했다고 해서 개별팀으로 못나가고 규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못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北側의 意志를 분명히 짚어놓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른 체육외적문제로 이용할 수 없도록 당장에 지난 25일만 하더라도 이문제를, 체육외적문제로 이용을 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전면개방이다. 무슨 자유왕래다 하는 문제와 연결을 시켜서 우리측이 지금 모든 대화를 안하고 회피하려고 그런다 이런식으로 지금 北側會談代表團이 연합성명을 발표해서 거기다 체육회담 대표가 거기 가담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자고 그러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100% 믿고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작년 4월 2일날도 北側이 그러한 聯合聲明을 발표한 후에 체육회담을 3개월 연기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7개월동안 회담이 안 열렸는데 이번에 또 聯合聲明을 나타냈거든요. 그러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그 意圖가 무엇이겠는가 한번 안짚어 볼 수가 없는게 우리의 立場이라 하는걸 말씀드립니다.

質問 : 그러면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會談霧圍氣로 봐서는 지난 6次會談이 끝난뒤에 실무접촉을 하고 오늘 본회담까지 오면서 저희들 시각에서 이제 사실은 결렬 초읽기로 들어갔다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北韓側에서도 입장이 너무나 확고하다. 더이상 물러날 데도 없고

그리고 우리측의 입장도 거의 확고한것 같은데 여기서는 저희들말로 어느 한쪽이 극적인 양보가 없는한 이거는 결렬로 갈텐데 그런데 대한 對策 같은게 있는지요?

答辯(任台淳): 저희들로서는 會談이 그야말로 위태로운 국면에 까지 와있다고 솔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優先 시기적으로 불적에 2월 15일부터는 共同委員會가 발족을 하자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날짜가 촉박해오고 있지 않느냐. 그점이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는 北側이 履行保障問題에 대해서 정말 성의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保障裝置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놓고 보면 北側이 정말 共同委員會를 하고싶은 생각이 정말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들로서는 적어도 서울·평양에 상주인원이 20명씩 派遣이 되고 말하자면 南北間에 큰 變革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狀況인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실천에 옮길려고 할 것 같으면 北側이 共同委員會를 할 생각을 정말 가지고 있을 것인가 하는것을 확인하는데 최소 한도의 필요한 措置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한걸음도 더 물러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首席代表가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절대적으로 우리는 더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立場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불적에는 적어도 이 共同委員會에 넘기고 싶은 생각이 정말로 있다고 그럴것 같으면 적어도 한걸음이라도 물러나서 妥協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우리는 방법론상에 여러가지 융통성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건데 거기에 대해서 북측이 한걸음

도 더붙러 설것이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협상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북측이 적어도 7일날 우리가 앞당겨서 날짜도 정하고 있습니다만 7일날 왜 우리가 제의했나 하면 7일날 우리가 공동위원회 위원 명단을 통보해 주자고 지금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장각서 속에는 그러한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공동위원회를 15일날 발족시킬려면 명단을 사전통보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것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걸 지금 몽땅 철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입장을 관철하려고 한다면 7일날도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제 북측도 공동위원회라도 만들어 보겠다 하는 의지가 과연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타협적인 자세도 보여주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아직도 우리는 가져 봅니다.

質問 : 일부의 얘기지만 회담이 이렇게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면 지금 양쪽이 물러설 자리가 뻥하고 서로 안물러날 것입니다.

이렇다면 북한측에서는 「엔트리」마감 하루전날 까지도 회담하자고 나가면서 우리측을 끝까지 괴롭힐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끌려고 그럴바에는 정말 명예로운 종결을 선언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答辯 (任台淳) : 우리가 단일팀으로 나가는 문제에서 협의하는 것 가지고서 우리가 무슨 북측이 끌고간다고 해서 끌려갈 입장도 아닌거고 우리 자세는 의연하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사실 의연한 입장이기 때문에 안될 경우에는 개별팀으로 나갈 수 있

다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質問 : 그 뜻은 잘해보자는 것으로 아는데 그 뜻을 잘모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지금 南北韓體育會談에서 형식은 약간 길은편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북쪽은 선단일팀구성 후交流이고, 남측은 선교류후 단일팀 구성 그런 태도인데 그런 지금 여러가지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代表께서는 앞으로 단일팀이 구성이 되는게 좋지만 결렬되었을 경우 南北韓間에 실질적으로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答辯 : 저희 입장에서는 불행하게도 단일팀이 구성 안된다고 하더라도 體育交流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나 또 그것은 北側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선발전에 대한 概念도 결국은 남북간 體育交流를 할 수 있는 그러한 霧圍氣, 조성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공개선발전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9개월이라고 하는 앞으로의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안에 이것이 안된다고 했더라도 남북간에 體育交流 우리가 하는데 노력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北側 代表團 記者會見〉

- * 日時：1990.1.29 (月) 12:20 ~ 12:38
- * 場所：板門店 北側 地域 「統一閣」앞 階段
- * 發表 및 答辯：김형진 團長

1. 記者會見文

방금 제 8 차 북남체육회담이 끝났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이미 7 차회담때 기자선생님들 하고 약속한 바와 같이 우리측은 이미 쌍방이 합의한 사항대로 첫째, 유일팀 구성·참가 방안 합의서의 문안정리를 할것과 두번째, 유일팀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방안합의서 문안정리를 하고 서명할것을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또 세번째로는 유일팀 구성 이행보장장치에 관한 문제를 이미 쌍방이 합의한 그대로 정부당국의 보장각서와 쌍방 올림픽위원회의 보장을 서로가 확인하는 확인서를 채택할 것으로 희망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자선생님들이 보시는 바와같이 오늘 회담에서 역시 7 차회담때 와 같이 유일팀 구성 최종단계에 와서 난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유일팀 구성을 세상에 선포하기로 된것은 제 6 차회담때 7 차회담에 나와서 쌍방수석대표들이 서명하는 것으로 종결짓자고 이미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남측이 제 7 차회담 1주일전인 1월 10일에 부당한 37개항의 부칙을 제기함으로써 7 차회담에서도 공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시 오늘 8 차회담에서도 유일팀을 선포할 수 있게끔 되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남측은 오늘 회답에서 부칙이란 말은 쓰지 않아도 용어해석과 또 보장 장치의 이여의 문제들을 합의해야 문안정리를 하겠다고 주장 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남측은 10개항 기본합의서의 용어해석에 관한 합의서를 1월 10일 실무대표 접촉에서 제기했었는데 오늘은 이 부속합의서를 철회하고 취지와 뜻을 문안정리할때 합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부칙이란 외피를 없애버리고 새롭게 취지와 뜻을 합의하면 된다는 것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사실상 본질적 내용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측은 남측이 그렇다면 10개 용어합의서를 전번 회답에서는 부속합의서로 채택하자고 하던것을 이번에 와서는 문안정리할때 취지와 뜻을 합의하면 된다고 하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물어 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문안정리를 할때 뜻을 합치지 못하면 문안정리를 못하고 합의서를 채택할 수 없는가 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남측은 이에 대해서 취지와 뜻을 합치지 못하면 10개항을 합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하면 유일팀 구성방안 제 4항 나항에는 『공동훈련 마지막 단계에 가서 선발전을 공개적으로 진행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남측은 이 뜻풀이에서 다시말하면 용어해석에서 참관단, 기자단, 지원인원의 규모, 또 선수단의 규모 또 보도의 방법 이런 문제들을 허다히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항들은 공동위원회 가서 토의하기로 되어있는 명백한 사항들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용어해석 문제에서, 공개적으로 한다는 문제에서 이것이

토의되지 않으면 합의를 이룩할 수 없는가 반문했을때 남측은 역시 합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해 줘니까? 이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유일팀구성 방안에 관한 1항부터 10항까지 용어해석이라는 외피속에서 토론해야 된다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9개월여에 걸쳐 애써 합의한 10개항을 뒤집어 엮고 다시 용어해석이란 외피를 써서 1항부터 10항까지 토론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기자선생님들. 이 10개항이 9개월여에 걸쳐 합의됐는데 그러면 다시 또 이제부터 그 용어해석이라는 걸 놓고 기본합의서는 무시하고 9개월 여에 걸쳐서 합의한다면 11차 아세아경기대회 개막날까지 토론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천만부당한 제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측은 귀측이 부칙, 다시 말하면 용어해석과 같은 이런 엉뚱한 제의를 철회하고 문안정리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남측은 유일팀구성을 진정으로 바라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제 11차 아세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아세아올림픽 평의회에 유일팀구성이 안될 경우 별개의 팀으로 참가한다는 서한을 보낼데 대한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과남이 40여년간 분단 역사 이래 유일팀을 구성하고자 마주앉은 회담에서 유일팀이 깨질것을 전제로 하는, 유일팀이 성사되지 못할것을 전제로 하는 편지를 그것도 국제기구에 북과남이 쌍방 회담에서 이런 편지를 띄우자는 것은 민족의 수치일뿐만 아니라 유일팀구성 본연의 목적과 하등 인연이 없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남측은 부칙에서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해야 할 여러가지 문제들을 회담 막바지 최종단계에 와서 토의하고야 합의서 문안정리를 하겠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회담 마지막에 남측이 제기한 부칙은 명백히 합의서이행 보장장치 아니라 유일팀구성 앞에 쌓아놓은 장벽일 뿐만 아니라 유일팀구성이 하루 빨리 성사될 수 없게 한 제동장치라는 것을 명백히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유일팀의 성사를 위해서 남측이 다음 회담때 남측이 제기한 부칙을 완전히 철회하고 온 민족이 그토록 기대하는 유일팀 구성에 성심성의껏 참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 오늘 회담을 놓고 보면 여러 기자선생님들도 명백히 확증하신 바와같이 과연 유일팀 구성에 누가 관심이 있고 누가 유일팀 구성을 바라는가 하는것을 회담 전과정은 명백히 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남측이 오늘 회담에서 천만부당한 부칙과 같은 제안들을 철회하지 않음으로써 회담전망을 흐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일팀을 결렬시킬 수 있는 이런 막다른 길에까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9차회담은 2월 7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 質疑・應答

質問 :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입니다. 서로가 앞으로 양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상 결렬이지 않습니까?

答辯 : 명백히 하겠습니다. 양보를, 이제 기자선생님이 서로가 양보를 하지

않으면 결렬되지 않는가. 물론 쌍방 회담인것 만큼 맞습니다.

우리는 회담에서 남측의 입장을 명백히 했습니다.

유일팀 구성하는 문제와 관련한 원칙적이고도 제반문제들이 포함돼 있는 유일팀 구성방안 10개 합의서와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는 험잡을데 없이 유일팀을 구성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명백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이 합의서가 채택되기 까지에는 사실상 모든 제안들이 우리의 대범한 양보에 의해서 합의된 것입니다.

때문에 유일팀을 구성하는 막바지에 와서 남측이 우리에게 양보하라고 제기할 문제조차 제기할 것이 없습니다 이젠 .

또 우리로서는 명백히 하건데 양보할 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質問 :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기술적으로 하나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2월 1일날 합의서가 발효되기로 돼있었는데요. 만약에 2월 7일날 합의가 되며는 그 규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答辯 : 2월 1일이 합의서의 효력 발생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저 쌍방의 제안입니다.

합의서에 밝힌거, 합의한건 아니고 그러니까 남측이 우리측이 제기한 부당한 조건을 철회해서 합의되면 그때 발효시일로 해서, 합의된 날로해서 발효시일을 그자리에 마주앉아서 쌍방이 합의하면 됩니다.

質問 : 당일로 합의서?

答辯 : 그거야 이제 합의해야죠.

質問 : 문화방송 인데요. 지금까지 회담에서 회담날짜를 잡는 과정에서 북측은 항상 회담날짜를 좀더 서둘러 빨리 잡자는 것을 고수해 왔는데, 오늘은 종전과는 달리 너무 회담날짜가 좀 빠른거 아니냐 하는 다른 태도를 보였는데 특별한 의미 부여가 되겠습니까?

答辯 : 그건 기자선생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옳게 보셨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우리가 날짜를 계속 앞당기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시기 모든 회담들에서 사실상 남측이 제기한 제안들이 부족점이 있고 이렇지만 우리는 회담을 빨리 성사시켜서 유일팀을 구성할 이런 입장에서 제안을 대폭 양보 했습니다.

그런데 남측이 최근 6차 회담 이후 실무대표접촉과 7차 오늘 회담 전 과정을 보면 과연 유일팀을 진실로 구성하자는 입장인가 하는 이 저의를 이해하기가 아주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회담날짜를 2월 7일로 정한것이 이르지 않는가 하는것은 무슨 뜻인가. 2월 1일도 좋고 2일도 좋다, 우리는 앞당길수록 좋다. 남측이 문안정리에 나서자. 그 의도를 가지면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명백히 한것은 7일 날짜를 앞당기는데 서두르지 말고 우리의 정당한 주장에 응하도록 하고 회담을 하자 이 뜻입니다.

質問 : 한겨레신문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북한쪽에서는 최소한 회담이 언제까지 성사 내지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答辯 : 회담이 언제까지 타결돼야 유일팀이 되는가 이뜻이 겠지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유일팀 구성방안 합의서 서명하기 위한 채택단계인

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선수들의 훈련에도 좋고 유일팀 준비에도 좋고 모든것이 족한 것입니다.

이자리에서 어느때에 가서 안되면 유일팀 구성할 수 없다. 이거는 단언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우리는 명백히 유일팀을 구성하자는 입장입니다. 명백합니다.

남측이 우리의 명백한 입장을 옳게 받아 들어서 빨리 촉구해 나오면 그만큼 앞당겨 집니다.

이상입니다.